

제24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이후에도 2012년부터 총동창회 고문을 맡아 동창회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大高 정체성 훼손하는 어떠한 변경도 안할 것”

김현규 교장 “100년 전통 승계 의지 확고… 불가피한 선택 이해해주길”

현재 일반고인 모교의 국제고등학교 전환·설립문제가 교육 당국의 결정이 임박하면서 동창회는 물론 지역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제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의 한 종류로 국제화, 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학교다. 즉, 국제고 전환은 현재 모교의 일반계 자율형공립고 교육과정이 국제고 교육과정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고가 되면 영어를 기본으로 국제정치, 국제문화, 국제법 등을 배우며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 신입생은 기존에 국제고가 설립돼 있는 지역(서울, 부산, 인천, 세

종, 경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선발이 가능하다.

김현규(53회) 모교 교장은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향후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학교 통폐합 등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국제고 전환 신청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했다.

국제고 전환 관련 실무 책임자인 김종무(61회) 모교 행정실장은 “모교의 국제고 전환에 대해 동문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모교의 옛 전통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동문들의 양해와 협조를 구했다. 김 실장은

“동문들이 가장 걱정하는 교가, 교표, 교훈 등 대전고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는 그대로 간다는 게 학교 측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그밖의 문제는 총동창회와 긴밀히 협의해 동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모교의 국제고 전환·설립 신청서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을 한 상태로 6월 중순 교육부의 동의 여부 통보가 오면 6월말경 교육감의 지정 고시로 확정된다.

한편 총동창회에서는 교명 변경 등 정체성 훼손을 우려하는 일부 동문들의 의구심을 모교에 전달, 김현규 교장으로부터 정체

성에 관련된 어떠한 변경 계획도 없다는 공문(오른쪽 사본)을 접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러나 총동창회 임원회의의 동의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문들이 총동창회 집행부와 의 면담을 요청, 신현일 회장을 비롯한 8명의 임원이 윤상렬(60회) 동문 등 후배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임원들은 전체 동문의 의견을 파악한 뒤 객관적 결과를 학교 측에 전달해 달라는 후배들의 요청을 받아 들어 각 기별 동창회를 통해 찬반의견을 수렴, 그 결과를 학교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동창회는 조만간 대전, 재경 기별동창회를 통해 동문들을 대상으로 찬반을 묻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제고 전환·설립 추진 경과보고<학교 측 설명 자료>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가칭)대전국제고 전환·설립 공모계획

- 학급수 : 24개 학급(8개 학급×3개 학년)
- 학생수 : 600명(학급 당 25명×24개 학급)
- 심사기준
 - 전환 신청서(학교운영계획서 등)의 적정성
 -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동창회 등) 의견
 - 유관기관(지자체, 동창회 등) 지원 협조
 - 국제고 교육과정에 필요한 부지 및 건물 등 교육시설물

(가칭)대전국제고등학교 전환·설립 추진 경과 및 일정

- 2015. 01. 27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고 전환·설립 공모계획 발표
- 2015. 01. 30 대전고등학교 TF팀 구성
- 2015. 02. 05 대전고등학교 전체 교직원 협의회
- 2015. 02. 17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제출
- 2015. 02. 23~24 대전고총동창회 및 재경동창회 임원회의
- 2015. 02. 26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 2015. 03. 12~17 재학생 및 학부모 대상 설명회 실시
- 2015. 03. 12 대전광역시 중구청 MOU 체결
- 2015. 03. 16 대전고등학교총동창회 MOU 체결
- 2015. 03. 25 (가칭)대전국제고등학교 전환·설립 공모 신청서 제출
- 2015. 04. 21 대전광역시교육청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 2015. 05. 01 교육부 동의 신청(교육감 → 교육부장관)
- 2015. 06월 중순 교육부 동의여부 통보(교육부장관 → 교육감)
- 2015. 6월말 경 교육감 지정 고시

국제고란?



국제고

- 국제전문 인재양성 교육
- 영어를 기본으로 국제정치 및 문화, 국제법 등을 배움
- 전교생 기숙사 생활
- 학생의 전국 단위 선발

*외국어고

- 외국어 특기자 교육

전국 국제고 현황

2015. 3. 1. 현재

순	지역	학교명	학급수(학년당)	학생수(학년당)	개교년도	비고
1	서울	서울국제고	18(6)	456(152)	2008	
2	부산	부산국제고	24(8)	522(174)	1998	
3	인천	인천국제고	18(6)	421(140)	2009	
4	세종	세종국제고	15(5)	300(100)	2013	
5	경기	청심국제고	15(5)	300(100)	2009	사립
6	경기	고양국제고	24(8)	597(199)	2011	
7	경기	동탄국제고	24(8)	586(195)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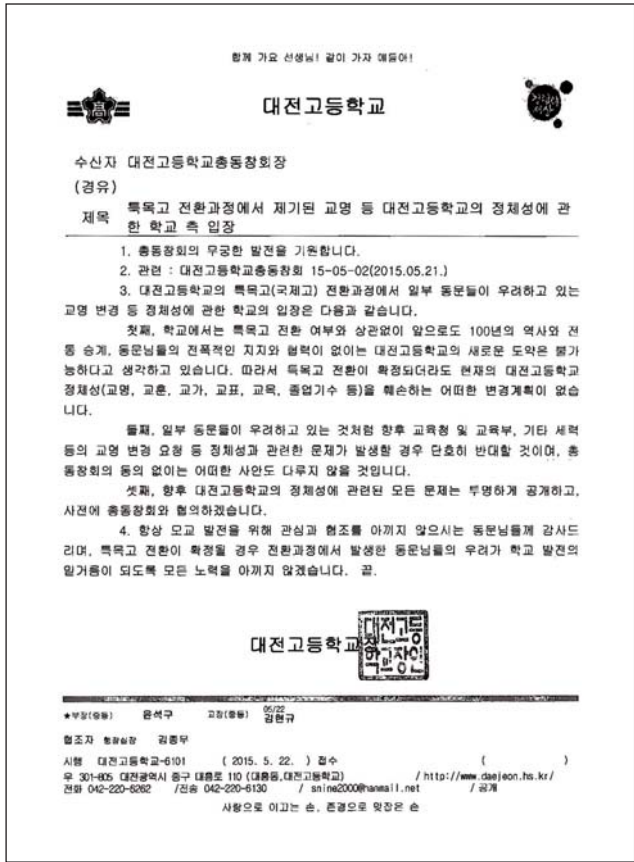
국제고 전환 신청을 선택해야만 했던 이유

가. 학생의 급격한 감소

- 대전지역 일반고 학생 5년 이내 11,200명 감소
38,831명(2014년)→37,978명→37,663명→34,970명→31,299명→27,557명(2019년)
- 학생수 감소로 향후 학생모집 어려움·학교 통폐합 등 변화 예상
(대전 인구는 2000년 138만5,606명에서 2014년 153만1,809명으로 15년간 14만6,203명이 증가했으나 본교가 위치해 있는 중구는 2000년 26만7,014명에서 2014년 26만1,165명으로 5,849명이 감소했음)
- 현재 모교는 대전 중구지역 유일 인문고라는 명분하에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없으나 향후 계속될 가능성 불투명

나. 학교 선호도의 급격한 하락

- 신도시 개발로 인한 성적우수자의 거주지(둔산지역) 이전으로 2000년 이후 대학진학 실적 하락
- 고등학생 학부모의 세대 교체(시험→평준화 세대) 후 모교의 명성 하락 ⇒ 명문고라고 생각하는 비율 감소 ⇒ 대전고 입학 메리트 없다는 인식 팽배(정부의 자사고 정책 지정 이후 더욱 심화)
- 45개 대전지역 고등학교 중 학교 선호도 중위권으로 예상
- 이는 학교 선호도 하락→성적 하락→대입실적 저조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짐
- 동문들은 대전고를 명문이라 부르고 있으나, 대전지역 학부모들은 대전고를 명문이라 칭하지 않음



국제고 전환시 장점

- 전국 단위로 우수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 점점 심화되는 침체 현상을 막고, 선배들이 이룬 지명도를 일부나마 되찾을 수 있음
- 교사 초빙권이 있어 우수한 교사진을 갖출 수 있음
- 스스로 지원에 대한 입학 및 선발, 전교생 기숙사 생활로 애교심이나 동문애를 더욱 키울 수 있음

국제고 전환에 대한 동문들의 우려

- 교명변경 등 정체성 논란

교명, 교가, 교훈, 교표, 졸업기수 등을 놓고 정체성 논란이 일고 있으나 대전고의 정체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의 국제고 전환계획이 최종 확정(6월 이후)된 이후 총동창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임. 다만 국제고로 전환되더라도 100년 역사의 대전고 정통성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학교의 기본방침이며,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학생·학부모·동창회 등의 의견을 듣고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임

- 평준화 졸업생(61회~98회)의 소외감

새로운 선발 졸업생의 등장으로 일부 평준화 졸업생과의 이질감이 생길 것을 우려해 국제고 전환을 반대하는 의견이 일부 있으나, 이는 교육과정의 변경에 따른 선발방식의 변화로 인한 선후배 간의 견해 차이로 이해하거나 대전고등학교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임

- 여학생의 입학

사관학교도 여학생이 입학하는 시대이고, 인문계열인 국제고의 특성상 여학생 비율이 높은 점과 여성의 동창회 활동에 부정적인 시각이 일부 존재하지만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여학생의 동창회 활동 또한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이므로 선배들이 잘 이끌고 지도하면 해결될 문제임. 또한 우리들의 딸을 후배로 받아들이겠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음

- 졸업생수 감소(420명→200명)

학생수 감소로 인한 졸업생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특목고 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연발생할 문제임. 더구나 모교가 위치해 있는 대전 중구의 경우 그 현상이 더욱 심한 편임

- 운동부(야구부, 농구부) 폐지

현재 운동부는 교육부 및 교육청의 관련 규정·지침에 의거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나, 특목고의 경우 체육특기자를 정원 외로 선발하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운동부 존속여부는 불투명함. 현재는 특목고에 운동부를 운영하도록 승인한 사례가 없음. '대전고등학교 발전이나 운동부 존속이냐'라는 큰 틀에서 놓고 봐야 할 것임

- 자연계열 후배가 사라진다

현재 국제고의 설립목적상 인문계열 진학이 많음. 다만 일부 대학의 경우 특목고 학생들을 위해 글로벌인재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함으로써 자연계열 진학의 길을 열어주고 있음. 또 교육부에서 2018학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문·이과 융합교육에 따라 자연계열 진학 희망자에게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국제고 졸업생의 상당수가 자연계열로 진학한 사례가 있음. 다만 인문계열 진학자수에 비해 자연계열 진학자가 적을 수는 있음

2015년 결연장학금 납부 현황

(단위 : 만원)

가수	성명	구좌	금액	입금일	누계	총계	비고	기타
31회	김용우	1	170	150319	510	680		
31회	성백전	1	170	150406	1,630	1,800		
34회	송 자	2	340	150226	3,930	4,270		최초
34회	심상기	3	510	150310	-	510		
35회	어준선	1	170	150403	1,800	1,970		
36회	김용각	6	1,020	150100	6,900	7,920	학교	
37회	윤영연	1	170	150430	170	170		최초
37회	이규성	1	170	150302	1,360	1,530		
38회	김소일	1	170	150424	1,970	2,140		
38회	김종구	1	170	150327	1,970	2,140		
39회	39회	1	170	150224	-	170		최초
39회	서정선	1	170	150309	1,970	2,140		
40회	김남흥	1	170	150427	1,800	1,970		
40회	양한호	1	170	150420	680	850		
40회	윤호일	1	170	150303	2,440	2,610		
40회	이정치	1	170	150420	1,520	1,690		
41회	김각영	1	170	150304	3,940	4,110		
43회	유창중	1	170	150428	1,970	2,140		
44회	고현철	1	170	150420	1,020	1,190		
44회	김상기	0.5	85	150316	900	985		
44회	노세래	1	170	150423		170		최초
44회	류명열	0.5	85	150318	900	985		
44회	성필호	1	170	150428	1,190	1,360		
44회	송재준	2	340	150415	2,040	2,380		
44회	이원용	1	170	150424	340	510		
45회	이운재	4	680	150403	750	1,430		
45회	이윤호	1	170	150228	510	680		
45회	한준환	1	170	150327	680	850		
46회	강형빈	1	170	150315	1,020	1,190		
46회	김창만	1	170	150313	1,020	1,190		
46회	박희섭	1	170	150325	1,630	1,800		
46회	이상량	1	170	150226	1,970	2,140		
47회	오세빈	1	170	150429	340	510		
47회	황인호	1	170	150428	170	340		
48회	금동화	1	170	150417	1,160	1,330		
48회	김기동	1	170	150323	1,020	1,190		
48회	김영주	1	170	150511		170		최초
48회	목이균	1	170	150311	1,970	2,140		
48회	신현일	4	680	140609	1,870	2,550		전년 170
48회	이선복	1	170	150418	340	510		
48회	정만우	1	170	150316	1,190	1,360		
48회	조남용	1	170	150301	1,010	1,180		
49회	권오상	6	1,020	150312	6,070	7,090		
49회	이상헌	1	170	150515	1,680	1,850		
50회	박철근	1	170	150428	850	1,020		
51회	경창호	1	170	150209	-	170		최초
51회	김대식	1	170	150320	1,020	1,190		
51회	김보균	3	510	150325	2,680	3,190		
51회	이철재				340	340		약정
51회	장원영	1	170	150306	-	170		최초
51회	황성연							약정
52회	고길석	1	170	150304	1,830	2,000		
52회	성기철	1	170	140507	1,020	1,190		
52회	이정환	1	170	150427	1,670	1,840		
53회	류성렬	1	170	150330	1,020	1,190		
53회	양호승	1	170	150303	1,360	1,530		
53회	이상덕	1	170	150317	-	170		최초
54회	이권훈	1	170	150326	1,490	1,660		
54회	정영재	1	170	150407	1,970	2,140		
54회	한건표	1	170	150302	510	680		
55회	김성남	1	170	150302	1,970	2,140		
55회	성하청	1	170	150227	340	510		
55회	신일영	1	170	150302	640	810		
55회	안상함	1	170	150312	1,020	1,190		
56회	권순일	1	170	150325	-	170		최초
56회	김홍린	1	170	150309	-	170		최초
56회	류한호	1	170	150323	335	505		
56회	박병욱	0.5	85	150328	170	255		
56회	송인수	1	170	150227	340	510		
56회	오재환	0.5	85	150417		85		최초
56회	이종구	1	170	150326	340	510		
56회	전규배	1	170	150407		170		최초
56회	조동인	3	510	150415	1,530	2,040		
57회	송인식	3	510	150314	2,710	3,220		
57회	오세현	1	170	150325	1,830	2,000		
58회	김경수	1	170	150317	1,830	2,000		
58회	박천서	1	170	150317	1,020	1,190		
58회	조철연	1	170	150320	1,020	1,190		
59회	신기천	1	170	150313	170	340		
59회	이건행							최초, 약정
60회	김대현	1	170	150303	1,830	2,000		
60회	송종환	1	170	150414		170		최초
60회	이명섭	1	170	150325	510	680		
60회	이명호	1	170	150324	810	980		
60회	최기남	1	170	150325	170	340		
61회	변재상	1	170	150313	340	510		
61회	이의범	5	850	150429	2,200	3,050		
62회	이동인	1	170	150429	340	510		
64회	정활채	0.5	85	150430	255	340		
69회	이도훈	1	170	150430		170		최초
단체	대연회	1	170	150416		170		최초
단체	오능회	1	170	150506		170		최초
계			116.5	19295		102,830	119,425	



김용각(36회) 동문, 모교발전기금·장학금 6천20만원 기탁

김용각(36회) 동문이 지난 3월 2일 모교발전기금 6,020만원을 쾌척했다. 김 동문은 매년 기부하기로 한 5,000만원의 장학기금과 함께 2015학년도 1대1결연장학금 1,020만원을 김현규 교장에게 전달했다.

김 동문은 2003년부터 13년간 모교에 7,920만원의 1대1결연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김 동문의 지원으로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6명의 재학생이 1년간 수업료(170만원)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김 동문은 결연장학금 외에도 2011년부터 '김용각 장학기금'으로 매년 5,000만원을 기탁해 총 2억5,000만원이 됐다. 이로써 김 동문이 그동안 모교에 기부한 총액은 3억3,000여만원이다. 김 동문은 37년간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유풍잉크를 운영한 기업인 출신이다.

김현규 교장은 기증식에서 "선배님의 꾸준한 헌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후배들이 선배님의 사랑과 박애정신을 본받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14 송년의 밤’ 행사 성대히 끝나



‘2014 총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해 12월 17일(수) 오후 6시 유성 리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 홀에서 50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大高 100주년을 향해 다시 뛰는 대능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송년행사는 대전고동문합창단인 ‘대능코러스’의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대능코러스’는 재경44회 아버지지합창단을 주축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후배 20여명이 동참, 총 50여명으로 구성됐는데 이날 31명이 서울에서 대절 버스로 내려와 공연을 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올해의 대능인상’은 교육부문 송

하영(52회) 한밭대학교 총장과 윤여표(53회) 충북대학교 총장, 행정부문 권선택(53회) 대전광역시장이 수상했다. 또 다른 수상자인 김보균(51회) ㈜캡트로닉스 회장, 권순일(56회) 대법관, 정재근(58회) 행정자치부 차관, 권용현(58회) 여성가족부 차관은 12월 9일 서울에서 열린 재경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대능인의 밤 행사에서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7·30 보궐선거에서 대전시 대덕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용기(60회) 동문에게 당선 축하패를 수여했고, 총동창회와 동기회 발전에 기여하고 동문 간 우의 증진에 앞장선 송태섭(47회), 박원희(50회), 이강진(65회) 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특별공로패 수상 대상자인 민상기(37회) 동문은 건강문제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다음 기회에 수여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신현일(48회) 총동창회장은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2억원을 기탁하겠다고 밝혀 동문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한편 박종윤(33회) 대능장학문화재단 이사장은 재단에 1억여원을 기탁한 이석순(33회) 전 재미시카고한인회장(친동생인 이인순 배재대 음대학장이 대리 수상)에게 대능고 액기부자 LevelⅢ 감사패를 수여했다.

재경총동창회 상임고문단 모임



재경총동창회 상임고문단 오찬이 3월 2일(월) 12시 서울 강남의 일식당 긴좌에서 있었다. 오찬에는 박준병(31회), 나웅배(32회), 송자(34회), 이동호(35회), 이규성(37회), 김종구(38회), 심대평(38회), 김각영(41회), 송인준(42회), 강창희(44회), 장영철(45회) 전 회장과 신현일(48회) 대전·재경통합회장, 조석준(51회) 재경총동창회 기획부회장, 김용덕(56회) 사무처장, 김종무(61회) 모교 행정실장이 참석했다.

신현일 총동창회장은 이 자리에서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모교 발전을 위한 동창회의 현안을 설명했다. 김종무 행정실장은 재경총동창회의 1대1결연장학금의 성과로 금년도 모교의 대학진학 실적이 대전 일반고 중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는 희소식을 전했다.

재경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대능인의 밤 성료



2014년 재경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대능인의 밤 행사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6시 조선히otel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완규(26회), 김시중(30회), 김종구(38회), 김각영(41회), 송인준(42회), 장영철(45회) 상임고문과, 박병석(49회), 이명수(52회), 김용태(66회) 국회의원, 권순일(56회) 대법관, 여형구(56회) 국토교통부 차관, 권용현(58회) 여성가족부 차관, 정재근(58회) 행정자치부 차관 등 450여 동문이 참석해 함께 세밀을 보내며 우의를 다졌다.

1부 행사는 정기총회로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에게 올해의 대능인상, 공로상, 감사패 전달, 올해의 총무상을 시상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올해의 대능인상 ▲경영부문 : 김보균(51회) ㈜캡트로

닉스 대표이사 ▲법조부문 : 권순일(56회) 대법관 ▲행정부문 : 권용현(58회) 여성가족부 차관, 정재근(58회) 행정자치부 차관 ▲공로상 : 박원희(44회) 아버지지합창단 단장 및 대전고동문합창단 산파역, 이규봉(53회) 제3회 과학기술인의 날 준비위원장, 김용구(54회) 전 재경총동창회 사무국장

대능발전모임 발족

대능발전모임 발족식이 3월 16일 저녁 7시 대전 둔산동에 위치한 낙지요리전문점 <뽕락>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신현일(48회) 총동창회장, 임상순(48회) 수석감사, 이인석(48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37회부터 86회까지 기회장·총무 및 동문 50여명이 참석했다.

대능발전모임은 총동창회와 기별동창회의 원활한 소통과 모교 및 동창회 발전에 대해 동문들이 스스로의 의견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 총동창회에서 만든 모임이다. 기별동창회 임원이 아니라도 동문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총동창회는 앞으로 기관장, 단체장, 고위직 동문들을 모임에 초청해 동문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승진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 온 동문들도 초청, 축하해줄 예정이다.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재경 2015년 제1차 임원회의 및 모교 발전 설명회



재경총동창회 제26대 임원 및 기별·지역·직능 회장단 연석회의가 2월 24일 오후 7시에 도곡동 군인공제회 엠플러스 컨벤션 4층 아미피에홀에서 열렸다.

신현일(48회) 총동창회장 겸 재경총동창회장은 신임 임원들에게 환영의 인사말을 전하고,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합심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한 김현규(53회) 모교 교장은 개교 100주년을 맞아 모교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동문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해 참석자들로부터 힘찬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아성장학재단 2015 1학기 장학금 전달

아성장학재단 2015년 1학기 장학금 전달식이 3월 11일 재단회의실에서 권오상(49회)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과 장학금 수령 후배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아성장학재단은 4년 전부터 모교 졸업자 중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후배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수혜자를 5명씩 늘려 현재 18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또 재경총동창회의 1대1결연장학금에도 매년 6구좌씩을 지원하고 있다.

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후배들이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으로 성장해주기를 당부했다. 아성장학재단 장학금은 1인당 학기에 200만원이다.

제26대 임원 상견례 및 기별회장단 연석회의



총동창회 제26대 임원 상견례 및 임원·기별회장단 연석회의가 2월 23일(월) 오후 6시 30분 모교 7층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김용환 34회 회장부터 이강석 76회 부회장까지 총 132명이 참석해 동창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 자리에서 신현일(48회) 총동창회장은 신입 임

원들에게 “희생과 봉사하는 자리를 맡아줘 고맙다”고 인사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상견례에 이은 연석회의에서는 기별 회장·총무 보직이 없어도 동문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대능발전모임 발족에 대해 설명하고, 3월 16일(월) 저녁 7시 둔산동 <빨락>에서 첫 모임을 갖기로 했다.

또 총동창회와 임원·동문 간 정보교류를 위한 페이스북, 밴드 등 SNS 개설에 대해 설명하고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총동창회 현안보고에 이은 모교 현안보고에서 김현규(53회) 교장은 개교 100주년을 맞아 모교의 새로운 발전 프로젝트를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행사 후 5층 식당에서 열린 만찬에서 참석자들은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제75회 동창회 창립 총회



제75회 동창회 창립총회가 4월 10일(금) 오후 7시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아구네 해물찜(75회 채상진 동문 운영)’에서 열렸다.

박찬규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75회 동창회칙을 제정하고 초대 회장에 김대호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김대호 초대 회장은 인사말에서 “75회 동창회가 비록 출범은 늦었지만 동문 누구나 부러워하는 알찬 동기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고 총무에 박찬규 동문을 임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동창회에서 이신석(48회) 수석부회장이 참석해 75회 동창회 창립을 축하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새로 부임한 교직원 17명에 금배지 증정



총동창회는 3월 11일 오후 6시 대전 서구 둔산동 중식당 라오왕에서 모교에 신규 부임(3월 1일자)한 교직원 17명에게 금배지를 증정하고 전체 교직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베풀었다.

금배지 증정식은 모교에 새로 부임한 교직원들에게 순금 1돈으로 제작한 모교교표 배지를 직접 달아주며 모교 부임을 환영하기 위해 총동창회가 매년 3월 초에 갖는 행사다.

전체 교직원 초청 만찬은 신현일(48회) 총동창회장이 지난 한 해 후배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수고한 교직원들을 금배지 증정식에 초청해 사비로 베푼 것이다.

이번 모교 신규 부임 교직원 금배지 증정식 및 전체 교직원 초청 만찬에는 총동창회에서 신현일(48회) 회장, 임상순(48회) 수석감사, 이신석(48회) 수석부회장, 이병주(48회) 부회장, 정규천(48회) 부회장, 김순식(51회) 자문위원, 민장홍(56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학교 측에서는 김현규(53회)

교장과 이흥구(55회) 교감을 비롯한 100여명의 교직원이 참석했다.

‘젊은 대교회’ 신년회



신현일(48회) 총동창회장이 60회 이후 기수의 전·현직 임원모임인 ‘젊은 대교회’를 격려했다. ‘젊은 대교회(회장 65회 김진억, 총무 67회 고영호)’는 1월 13일(화) 저녁 7시 둔산동 <빨락>에서 회원 43명이 참석해 신년회를 가졌다. 신현일 총동창회장은 이신석(48회) 수석부회장, 민장홍(56회) 사무국장을 대동, 내내 자리를 함께하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신 회장은 인사말에서 “60대 기수가 총동창회의 중추 역할을 해줘야 총동창회가 발전할 수 있다”며 “앞으로 60대 기수 동문들이 총동창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젊은 대교회’가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식사비를 부담했다. 이날 모임에는 재경 육능회에서 이광우(63회) 회장과 김금배(66회) 총무가 참석해 ‘젊은 대교회’의 신년회를 축하해주었다.

한모회 신입생 환영회



총동창회는 4월 10일 금요일 저녁7시 사리원면옥 둔산점에서 대전지역 한모회 신입생 환영회를 열었다.

이날 환영회에는 대전지역 대학교 졸업생, 재학생, 신입생 등 60여 명이 참석해 선배들이 후배들의 대학입학을 축하해주고 대학생활을 뜻있게 보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등 동문 선후배간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총동창회는 신입생들에게 이번에 특별히 제작한 한모회 배지를 증정하고 앞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한모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당부했다.

한모회는 원래 대학별로 구성돼 있었으나 근래 들어 활동이 부진해 매년 총동창회가 나서서 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신입생 환영회를 열고 있다.

프 로 필

김우식(52회) 인천도시공사 사장 취임



김우식(52회) 동문이 인천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김 동문은 충남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기술고시로 체신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래 한국전기통신공사 국장과 KTF 부사장, KT와 위텔 대표이사를 거쳐 KT 부문장(사장)과 KT씨에스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남승철(53회)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취임



남승철(53회) 동문이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남 동문은 충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충청은행에 입행해 하나은행 영업부장, 충청기업금융팀장 등등 역임했다. 임기는 4월 1일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이다.

송석정(53회) 기술경영인상 수상



송석정(53회) 네오부코오롱 대표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선정하는 '2015년도 기술경영인상' 최고 기술경영자(CTO)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송 동문은 30여년간 소재 부문의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병두(54회) 대전시의사회장 취임



송병두(54회, 오케이재활의학과 의원장) 동문이 대전시의사회장에 취임했다. 송 동문은 2월 27일 오후 대전 중구 비엠케이컨벤션에서 열린 제10대 대전시의사회장 선거에서 4명의 후보와 3차례 투표 끝에 당선됐다. 이번 회장 선거에는 회장 선출 권한이 있는 대의원 59명 중 58명이 투표에 참여할 만큼 경쟁이 뜨거웠다.

남성현(56회) 국립산림과학원장 취임



남성현(56) 동문이 1월 12일 국립산림과학원장에 취임했다. 남 동문은 1978년 산림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산림청 산림이용국장, 기획조정관, 남부지방산림청장, 한·인도네시아산림협력센터장 등을 지냈다. 기획·예산업무와 현장경험을 갖춘 산림 분야 전문가로 업무 추진력이 뛰

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다. 건국대 행정학과, 충남대 대학원 산림자원학과(농학박사)를 졸업했다.

조용병(55회) 신한은행장 취임



조용병(55회) 신한 BNP파리바자산은행 사장이 3월 18일 신한은행장에 취임했다. 이에 앞서 신한금융지주는 2월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자회사경영발전위원회를 열고 조용병 사장을 차기 신한은행장으로 결정했다. 조 동문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신한은행에 입행한 이후 인사부장, 기획부장, 뉴욕지점장, 글로벌사업그룹 담당 전무 및 리테일부문장 겸 영업추진그룹 담당 부행장을 역임했다.

박찬인(56회) 대전문화재단 대표 취임



박찬인(56회, 충남대 인문대학 교수) 동문이 대전문화재단 대표에 취임했다. 박 동문은 충남대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문학석사,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부터 충남대 인문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인문대학장, 아시아지역연구소장을 지냈다. 2008년부터 2년간 대전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2009년부터는 대전·충남생명의숲 상임대표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해왔다.

민중기(56회) 서울동부지법원장 취임



민중기(56회,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동문이 2월 12일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취임했다. 민 동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24회(연수원 14기)로 1988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육현표(57회) 에스원 대표이사 취임



육현표(57회,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동문이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다. 육 동문은 삼성그룹 기업구조조정본부 기획팀 부장, 전략기획실 기획홍보팀 상무, 삼성물산 전자부문 전무를 거쳐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 전무,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삼성경제연구소 전략

지원 총괄사장을 맡고 있었다. 육 동문은 기획 및 대외업무 분야에서 역량이 뛰어난 삼성그룹의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힌다.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경영학 석사, 성균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병철(57회) 경북지방우정청장 취임



이병철(57회, 부산지방우정청장) 동문이 2월 23일 경북지방우정청장에 취임했다. 이 동문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상공부 미주통상과, 산업자원부 무역진흥과,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과 자원개발총괄과장, 투자정책관을 거쳐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장, 부산지방우정청장을 역임했다.

홍재기(60회) 공군소장 진급



홍재기(60회, 공군 준장) 동문이 전반기 군 장성 진급 정기인사에서 공군소장으로 진급했다. 홍 동문은 공사 33기로 공군 본부 비서실장, 제1전투비행단장, 작전사령부 참모장 등을 역임하고 방위사업청 지휘정찰사업부장을 맡고 있었다.

강승구(65회)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장 당선



강승구(65회) 동문이 제25대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장에 당선됐다. 북가주 이스트베이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강 동문은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부동산투자건설회사 골드인베스트먼트 그

룹을 운영하고 있다. 강 동문은 2003년에는 버클리 기독교대학(Berkeley Christian College)을 설립하고 샌프란시스코 충청향우회장, 민주당 샌프란시스코협의회 초대 회장으로도 활동했다.

이병래(60회) 금융정보분석원장 취임



이병래(60회,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동문이 불법 금융거래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신임 원장에 취임했다.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재무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금융관련 경험을 쌓은 금융 분야 전문가이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동현(74회) 프로농구 KT 감독 부임



조동현(74회) 동문이 프로농구 부산KT 신임 감독으로 부임했다. 조 동문은 연세대 졸업 후 1999년 인천대우(현 인천전자랜드)에 입단, 프로에 발을 디딘 후 2004년 부산KTF(현 KT)로 옮겨 2013년 현역에서 은퇴했다. 조 동문은 2013년부터 울산모비스 코치를 맡으며 지도자로서 제2의 농구인생을 시작해 2013~2014, 2014~2015 시즌에 모비스가 우승하는데 공헌했다. 조 동문은 조상현(74회) 고양오리온스 코치의 쌍둥이 동생이기도 하다.

대전고등학교 개교
98주년

(날짜 순)

성명	기수	내 용	비 고
김재홍	56회	삼성SDI 부사장으로 승진(12/4)	
성주영	60회	산업은행 창조기술금융부문장 승진(12/29)	
박백범	55회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발령(1/14)	
윤석총	58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실장 발령(1/15)	
성광식	60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기획처장 발령(1/15)	
조승용	60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 발령(1/15)	
김기용	56회	대전 둔산경찰서장 발령(1/16)	
박근태	55회	대전시아구연합회 회장 선출(1/22)	더맥키스컴퍼니 대표
김태범	59회	대전변호사회 1부회장 선출(1/28)	
서철모	62회	충남도의회 사무처장 임명(1/29)	
박대범	45회	대전시체육회 부회장 선임(2/5)	전 모교 교장
김보균	51회	2015년 올해의 강소기업 선정(2/12)	(주)케트로닉스 대표
박희춘	58회	금감원 부원장보 임명(2/16)	
문성식	58회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취임(3/1)	

“고려인 18만 중앙아시아 자원 부국… 우리와 유사성 많아”

〈글로벌 대능인〉

이 욱 헌(59회) 駐우즈베키스탄 대사

이욱헌(59회) 駐우즈베키스탄 대사는 외교가에서 엘리트로 손꼽히는 중앙아시아 전문가다. 駐프랑스대사관 공사, 외교통상부 유럽국장을 거쳐 2013년에 자원부국이면서 개발에 막 눈을 뜬 우즈베키스탄에 부임했다. 현직 대사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우즈베키스탄의 생생한 소식이 이 나라에 관심있는 동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인터뷰는 이메일로 진행했다. <편집자 주>

—한국 대사의 눈에 비친 우즈베키스탄은 어떤 나라입니까?

“중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해 1991년 舊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20여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이라는 성과를 달성하며 중앙아시아 역내 중심국가로 빠르게 성장해온 국가입니다. 유라시아 최후의 통일제국인 옛 티무르제국의 중심지였던 만큼 풍부한 역사적 전통과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 국민들은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양 문물교류를 이끌어 문명발달에 이바지한 민족적 자긍심이 매우 큽니다. 우리와 같은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비슷한 국민성과 풍습 등 문화적 유사성이 많아 한국에 대해 매우 가깝고 친근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한국이 이룬 경제발전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고 여러 방면에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의 현재 관계와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한 직후인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교 이래 양국 정상급의 상호 방문이 12회에 달할 만큼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가 이어지고 있어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셔서 카리모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유용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경제협력은 양국 간 협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국 교역량이 연간 20억불이 넘고 우리나라의 對우즈베키스탄 누적 투자액도 12억불에 이를 정도로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입니다. 특히, 에너지/자원,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은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자본, 경험, 노하우가 융합돼 높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주요 분야인데, 현재 우즈베키스탄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인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천연가스를 고부가가치화하는 수출 40억불 규모)가 양국 합작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밖에 우리 기업들의 각종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액이 100억불에 달합니다. 현재 4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자동차부품, 섬유, 경공업, 통신, 금융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특히, 우즈베키스탄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의 90%를 차지하는 GM자동차(舊대우자동차)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인하대학교가 타슈켄트에 캠퍼스를 열어 우즈베키스탄에서 IT 인재를 육성하고 있고, 현재 우리의 ODA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 최대의 아동병원, 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의 생활상은 어떤가요?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3,000여명의 한국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상사 주재원, 중소기업 경영인, 엔지니어 등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다수의 인프라 건설, 플



랜트를 수주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땀 흘리는 근로자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는 18만명에 달하는 고려인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동포들은 1937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한 아픔과 슬픈 고난을 극복하고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존경받는 소수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대부분이 한국어를 하지 못하지만 아직도 설날, 추석 등 우리 전통 명절에는 많은 동포들이 모여 함께 흥겨운 시간을 갖는 등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 문화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은 대부분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지만 하원의원, 상원의원도 배출하는 등 정계에서도 나름대로 입지를 확보하고 있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협력관계 강화에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타슈켄트 간 직항 항공편을 일주일에 10회 이상 운항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인들과 우즈베키스탄 보따리상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근황도 소개해주시지요.

“현재 4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제조업, 건설, 금융, IT, 섬유,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대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우즈베키스탄의 대규모 가스화학 플랜트, 가스처리시설, 복합화력발전소,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는 우즈베키스탄 가전, 휴대전화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KT는 인

터넷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천-타슈켄트 노선 취항과 함께 나보이공항을 위탁 경영하면서 나보이 물류 콤플렉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우즈베키스탄 최대 규모의 면방 법인을 운영 중이며, 중개무역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KDB Uzbekistan을 설립해 제1의 외국계 은행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GM자동차의 17개 부품 납품 기업들을 포함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현지 대학 유학은 어떻습니까?

“최근 일부 학생들이 우즈베키스탄 의대에 유학하는 사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우즈베키스탄의 대학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유학 대상지로 고려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러시아어 연수 등은 러시아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에 진출하려는 동문들에게 조언하신다면?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풍부한 자원과 유라시아 교통의 요충지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최근 중국이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저돌적으로 진출을 추진하는 등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한국을 높은 기술과 발전 경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에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다소 저평가된 측면이 있지만 많은 기회를 제공할 블루오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망산업 분야 진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투자 환경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신흥시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장래 외교관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가 더욱 더 중요한 국가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문제에 국가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할 수 있고, 좁은 영토와 빈약한 자원을 딛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 세계와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외교관은 정치, 경제, 문화, 영사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멀티태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타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전통적인 외교업무와 함께 최근에는 에너지/자원 확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및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하는 경제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영향으로 교민, 동포는 물론 여행객의 편리와 안전 등을 위한 영사 서비스업무의 중요성도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어 능력, 국제관계 및 국제법과 인문, 사회, 경제 등 다방면에 대한 소양을 갖추어야 하고, 확고한 국가관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외교관은 상대방을 나의 친구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 문화와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소통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친구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

“국내 최초 노인질환 중심 종합병원 개원에 자부심”

〈초대석〉

오 수 정(44회) 대청병원장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국내 최초의 노인질환 중심 종합병원이 동문에 의해 설립된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다. 오수정(44회) 대청병원장의 얼굴에도 뿌듯함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오 동문은 특히 대전권역 외곽에 노인 인구의 분포가 높으며 앞으로 의료관광에도 눈을 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편집자 주〉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가 됐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가’와 같은 건강수명이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랜 염원이었던 노인질환 중심 종합병원을 개원하게 돼 저 역시 감회가 새롭습니다. 2012년 3월에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 지 2년여만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질환 중심 종합병원이라는 특징을 내세운 국내 첫 의료기관인 만큼 기쁨보다는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앞섭니다. 성공적인 개원뿐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문 병원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대청병원은 연면적 2만3533㎡, 지하 4층, 지상 8층, 300병상 규모입니다. 신경외과, 소화기내과를 비롯해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 응급의학과 등 20개의 진료과에서 40여 명의 의료진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발병률이 높은 노인질환은 소화기센터, 척추관절센터, 심뇌혈관센터, 치아건강센터와 같은 특성화센터에서 협진으로 중점 진료합니다. 2층에는 최고의 시설과 최신 사양의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진센터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검진센터 내에는 MRI, CT와 같은 영상검사실이 있어 센터 내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병원 내에는 환자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옥상가든과 장례식장, 편의점, 푸드코트, 카페테리아, 의료용품점, 베이커리와 같은 편의시설이 있고 지하주차장과 주차타워에 300대의 동시 주차가 가능합니다.”

—대청병원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청병원은 국내 최초의 노인질환 중심 종합병원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병률이 높아지는 노인질환을 중점적으로 치료합니다. 각종 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만성 신부전증, 퇴행성 척추질환, 뇌졸중, 치매, 두통, 손발저림, 관절염, 탈장, 치질, 전립선 비대증이 대표적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맞춰 떠오르는 실버세대, 6075의 신중년 세대에게 보다 특화된 진료를 제공하는 100세 시대 맞춤형 의료기관인 것입니다. 대청병원은 이를 위해 노인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진으로 대거 구성했습니다. 척추명의로 유명한 하호균 의무원장처럼 국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의료진 40여 명이 진료합니다. 또 대전과 충청권역에서 가장 최신 사양인 64채널의 PET-CT를 비롯해 MRI, CT 등의 검사장비가 진단율과 치료율을 높여줍니다. 3층에는 세계적인 투석전문회사 FMC의 혈액투석장비 20여대가 설치된 인공신장실도 운영합니다. 투석액을 철저히 관리해 투석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모든 침대에 개인 TV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 편리하게 투석

받을 수 있습니다. 로봇수술까지 가능할 정도로 넓고 쾌적한 환경의 수술실과 20여 병상 규모의 중환자실도 환자들의 치료를 돕습니다. 생활습관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1대1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데이터화된 검사결과로 신뢰감까지 제공하는 종합검진센터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주요 검사에 대해 당일 결과를 제공, 이상여부 발견 시 보다 빠른 진료로 연계합니다.”



—병원을 신축하며 중점을 둔 분야는 무엇인가요?

“대청병원은 말만 노인질환 중심 종합병원이 아닌 노인이 진료받기 편하고, 진료받고 싶은 의료기관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진료와 검사를 위해 환자가 대기하는 시간이 짧도록 모든 시스템에 IT와 전산을 접목했습니다. 또 환자의 이용 또는 방문 빈도가 높은 MRI, CT, X-ray, 채혈실과 같은 검사실을 로비층과 1층에 배치했고, 종합검진센터 내에도 모든 검사실을 배치해 환자가 검사를 위해 다른 층으로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친환경적인 부분에도 중점을 뒀습니다. 환자는 몸과 마음 모두가 치료되고 치유될 때 더 빨리 완치됩니다. 3층에 있는 옥상가든 뿐 아니라 병원 인근에 산책로를 뒀 환자분들께서 답답한 병원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의 포근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진료실에 창문을 설치해 쾌적하고 환한 진료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접수창구에 의자와 돌보기를 배치하고, 퇴원 시 수납창구까지 가지 않고서도 병실에서 퇴원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것 등도 중점을 둔 것 중 하나입니다.”

—의사 겸 병원 경영자로서의 철학을 들려주세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헌신’과 ‘도전’, ‘화

합’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왔습니다. 의사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환자의 치유를 위해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의사가 얼마만큼 정성을 쏟느냐에 따라 치료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변화하지 않으면 의사도 도태됩니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최신지견을 습득해 환자를 돌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시대에 맞는 진료표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청병원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변화를 통해 100세 시대의 진료표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병원은 의사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환자를 보살피는 간호사부터 행정직원까지 전 임직원이 존중과 배려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 기관, 지역사회와도 함께 화합할 때 의사, 병원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술을 펼치는 만큼 의사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육과 연구, 자기계발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최고의 인재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 합니다.”

—앞으로 어떤 병원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신지요?

“이제 막 진료를 시작했기에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 후에는 200병상 증축공사에 돌입해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병원 설계 당시부터 500병상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병상수를 늘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100세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진료서비스 부분에서도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부병원은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해 5월에 서부요양병원으로 재오픈합니다. 그러면 대청병원은 서부요양병원과 함께 신중년 세대와 어르신들께 검진에서부터 진단, 치료, 예방교육, 장기 요양에 이르는 토탈 메디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대청병원의 비전인 100세 시대의 진료표준을 선도하는 병원, 고객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 화합하는 조직문화로 직원 모두가 긍지를 느끼는 병원,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의료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차 의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50년 가까이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라는 직업을 가져온 선배로서 후배들이 단지 ‘취직이 잘 되니까’ 또는 ‘성적에 맞아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와 같은 단순한 생각으로 의사를 꿈꾼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희생정신과 끊임없는 노력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직업이 바로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술을 넘어 인술을 펼칠 각오가 돼 있다면 의사라는 직업은 도전해 볼 만합니다. 평균 연령이 증가하면서 기대수명, 건강수명에 대한 관심이 커져 의사, 병원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어서입니다. 상권이 좋은 사거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을 때 편의점이나 식당보다 많은 게 병·의원이라지만 환자에게 마음을 다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최선의 술기를 펼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를 꿈꾸는 후배들이여, 도전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서구 정립동에서 3월 9일 진료를 시작한 노인질환 중심 종합병원 대청병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고 동문의 일원으로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겠습니다. 모든 동문들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구성원이 되길 기원합니다. 저 역시 100세 시대를 선도하는 진료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곳 대청병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전고등학교 제70회 동창회

• 회장 이상민 • 재경회장 강종빈 • 총무 김성근, 박익수 • 재경총무 김규형

상賢 변호사
법무법인상현 강종빈 姜鍾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89 유민빌딩 4층(서초동)
(서초역 3번출구) (우) 137-872
대 표 02-3473-7003 FAX 02-581-7002
Mobile 010-2886-3555
E-mail dreaming-acting@hanmail.net

모두투어 힐투어
www.modeltour.com

대표이사 권용일

Tel : (042)488-8338
Fax: (042)486-8084
Mobile : 010-4450-9570
E-mail : 01044509570@hanmail.net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69
홈플러스 유성점 3층

SCHOLARS
EDUCATION WE CAN TRUST

대표 권호용
Paul Kwon

스콜라스에듀케이션(주)
홈페이지 http://www.escholars.co.kr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2-1번지 명지프라자 7층
Tel. 031-938-0507 Fax. 031-938-0579
Mobile. 010-3462-0572 kwon@eschoars.co.kr

KCT 株式會社 京友크린텍
Kyung-woo Construction & Environment

리채
환경사업부문 기술연구소장
理事 金奎亨
工學博士 Kim Kyu Hyoung

본 사, 경성북도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 101
사무소,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28길 55 대유리채빌딩 201호
T. 02-832-9955 / F. 02-834-7989
M. 010-5434-0344 / E. kyu0344@korea.com

일침당한의원

원장 김병국

TEL. 042) 484-7588
FAX. 042) 487-7588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540 월평클리닉 6층
(이마트 월평역점(구.월마트) 옆)

http://정책금융지도원.org

정책금융지도원

이사 김태현

대전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112번지 아세아빌딩 3층
(서구 대덕대로 175번길 14)
Tel. 042-488-1794 Fax. 042-489-1794
Mobile. 010-3402-9976, ra1972@naver.com

LIG 손해보험 LIG for Tomorrow

민경석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68 10층
(대흥동 LIG빌딩)
전화 : 042-259-3701
팩스 : 042-253-5157
Mobile : 010-2484-3220
E-mail : minks@lig.co.kr

세무사민현식사무소

세무사 민현식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광안동 1595
세방글로벌시티 212호(동안양세무서 앞)
전화 : 031-384-7311~2 팩스 : 031-384-7319
H.P : 010-7204-7311 E-mail : mintax09@hanmail.net
http://www.mintax.kr

수 디자인
Interior & Remodeling

박문근

Mobile : 010-7668-5556

Fax : 042-623-5335
E-mail : medeen44@hanmail.net
대전 동구 삼성동 366-8

TAEYOUNG ACCOUNTING CORPORATION

태영회계법인
www.tya.co.kr

이사 공인회계사 박인홍
세무사
Mobile. 010.3404.4392

100-760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장교동, 장교빌딩 13층 1304호)
Tel 02.541.9760~3 Fax 02.541.9766
305-509 대전시 테크노중앙로54(관평동) 남정빌딩 301호
Tel 042.536.2347~8 Fax 042.533.2348
E-mail : pkong1@empas.com

KANGSAN
노무법인 강산

대표/공인노무사 박정기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95
문산 만년오피스텔 510호(우.302-847)
Tel. 042)476-9090(대)
Fax. 042)367-5009
보령 충남 보령시 한내로 7
동일빌딩 9층(우.355-938)
Tel. 041)935-5758(대)
Fax. 041)935-7897

판암면옥 백공헌

H. 010-8427-4850

대전 동구 판암2동 옷발5길 189

성창원공인중개사

대표 성창원

H. 010-7412-8495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 29(구 갈마동 343-16)
Tel. 524-8999 Fax. 536-8999
계좌 462-02-278581 농협(예금주: 김효정)
www.r114.net/v/524-8999

해선당

대표 송범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 160번길 31-8
Tel (042)541-9980 Fax (042)541-9979
Mobile 010-2240-9989
E-mail danta33@hanmail.net

서울밝은세상안과

우. 135-89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65-1번지 한양타운 200층
TEL 02.3443.0880 FAX 02.3443.8782

원장 | 의학박사 송윤중
www.iloveeye.com
MOBILE 010-9870-3254 E-MAIL yjsong@iloveeye.com

파란 동그라미는 우리가 꿈꾸는 밝은 세상이자,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의 세상입니다.
서울밝은세상안과는 항상 부산밝은세상안과와 함께 합니다.

www.peacevillage.or.kr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사학복지법인 평화의마을 아동복지센터

원장 신종근

300-081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 85
손전화 010-6385-8336
이메일 9621q1tjd@hanmail.net
대 표 042)672-1418
팩 스 042)625-1242

[아이 함께 키우기]
심리치료, 꿈 만들기, 장학금, 가족만들기
[후원계좌]
신한은행 : 100-013-472509
국민은행 : 724701-01-018875
하나은행 : 645-910022-04705

SKYREVO

신항목
이사 / 변호사

(주)스카이레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8-25 강남오피스텔 704호
T 02 3477 7004 F 02 3477 5025
M 010 6363 0530
E hmsin91@gmail.com
www.skyrevo.com

이벤트종합대행/프로모션/퍼포먼스/축제/전시

mobile phone 010-9806-0685

대표이사 이견우
President Lee Keon Woo

(주)지오커뮤니케이션즈
ZI COMM.

T 02 557 6119
F 02 6280 4196
E ziocom7@gmail.com
A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3-22 신화B/D 401호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12길 20

SK

회덕롯데리아주유소

대표 이상구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22
tel 042)628-1496
fax 042)625-5906
mobile 010-2651-5149
neptunes@hanmail.net

HR 주식회사 세종HR
아웃소싱전문그룹 Sejong Human Resource

대표이사 이상민

(우)305-150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유성대로 303 뉴타운프라자 8층
Tel (042)528-9114 Fax (042)528-9115
Mobile 010-5481-8032
E-mail jdlsm@sejonghr.com www.sejonghr.com

하나은행 대출모집위탁법인(주)하나MMC

하나MMC
Hana Mortgage Marketing Company

이상수
SRT / 하나은행대출상담사

대전 서구 둔산로 155(둔산동 1509 크로바상가 2층)
Tel. 042-634-1111 Fax. 042-483-2690
Mobile. 010-2401-7405

한국은행연합회 등록번호 81-02-00014
위 사행은 (주)하나은행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하나은행법에 소속되어 있으며 한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출상당사입니다.
신원확인방법 www.loancounselant.co.kr 민원창구 연락처 하나은행 02-2002-1079

(주)건우이엔씨
도시계획 / 환경영향평가 / 교통-사건재해-사건환경성검토

대표이사 이재덕

대전시 유성구 복유성대로 303 반석동 뉴타운프라자 704호
TEL. (042) 823-6533 FAX. (042) 823-6534
Mobile. 010-3220-6643
E-mail. 8236533@daum.net
Webhard. ID:KW6533 PW:1234

눈빛
안과네트워크

네트워크 대표원장 이호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183
DS클리닉 9층/B1층
Tel 042.486.5050
Fax 042.486.5140
H·P 010.4746.7734
www.눈빛안과.com

열정과 공정으로 도전

yes -Sc of fold ing Sy stem
시스템 동아리 설치·해체전문/자재임대

대표 장상원
010-3434-8212

대전시 대덕구 동촌동로 151
그린타운 101동 1205호
TEL : 042-485-9884(팩스겸용)
E-mail: cris0730@hanmail.net
305-20-99589-08(농협) 장상원

감정평가사 장필순
mobile. 010-3125-6789
e-mail. pilsoon72@gmail.com

Hana

(주)하나감정평가법인대전·충청지사
302-82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63
대영프라자 409호
T. 042-484-0701 F.042-484-1993
http://www.hgreco.co.kr

국토교통부
지정유수감정평가법인

일광주물공업주식회사

상무 정영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44번지
TEL : (042) 672-3648·627-9258
FAX: (042) 624-2800
H·P : 010-8800-3538
E-mail : ilkwang7@unitel.co.kr

[ISO 9001/14001인증]
IAF

일회용 식품용기 전문 회사

Borim Industry

보림실업(주) 대표이사 정정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228-6번지
TEL 042-631-8820 FAX 042-631-8826
H·P 010-5270-1314 E-MAIL jjm1314@nate.com
Web www.e-borim.com

(주)하성준의 맛 이야기

대표 허성준

경기도 광명시 금오로 794번길 15-10(목길동)
Tel 070.8878.9259 Fax 02.2614.9259
Mobile 010.3695.9709
hsj5542@hanmail.net



김현규 교장 등 44명 미국 명문대학 탐방체험

샌프란시스코 동창회에서 환영회

김현규 모교 교장과 윤석구 부장 외 42명의 학생들이 지난 2월 9일부터 16일까지 7박8일 동안 미국 명문대학 탐방체험을 했다. 주요 일정은 미 서부지역 명문대학인 UCLA, 캘리포니아공과대학(칼텍), 스탠포드대학, UC버클리대학, 실리콘밸리 등으로 짜여졌다.

2월 14일에는 샌프란시스코 동창회(회장 성기안·42회)에서 주최한 ‘모교 재학생 미국방문 환영회’에 참석해 교가제창, 장학금

전달, 선배님들의 모교 이야기, 샌프란시스코 기념 티셔츠와 이현덕(31회) 동문의 자서전을 전달받고 선배 간 세대 차를 뛰어넘는 동문애를 만끽했다.

김용태(45회) 샌프란시스코 동창회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연수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훌륭한 대견인으로 커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규 교장은 동문들의 성대한 환영에 감사를 표하고 “2017년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샌프란시스코 동문들을 초청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명문대학 탐방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2월 9일 월요일 아침 미국으로 떠나는 날, 우리는 학교에 모여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버스에 오르자 꿈만

같았던 미국 여행이 실감나기 시작했다. 들뜬 마음에 인천공항까지 가는 2시간 반이 금방 지나가 버렸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을 마친 후 설레는 마음을 안고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우리나라 땅을 떠나는 게 처음이어서 승무원 누나는 물론이고 의자에 달린 모니터, 기내식 등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10시간 동안의 비행, 다신 오지 않을 이 설레는 시간을 날아 2월 9일(미국시각) 월요일 아침 아메리카대륙에 대망의 첫 발을 내디뎠다.

미국, 세계를 이끌어가는 명실상부한 초강대국 미국에 왔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국의 낯선 기후와 냄새를 느끼며 공항을 빠져나와 바로 첫 날 일정을 시작했다. 일행은 LA 시내에서 세계적인 스타들만 할 수 있다는 핸드 프린팅과 다음 주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린다는 DOLBY 극장 레드 카펫도 직접 보았다. 또한 유니

버설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화의 세트장을 구경하고 다양한 놀이기구를 타보았다. 놀이기구들의 스케일과 기술력에 오감이 호강한 기분이었다.

둘째 날 역시 LA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UCLA를 방문해 캠퍼스 투어를 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점심을 학교식당에서 직접 주문해서 먹었는데 영어듣기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진짜 현지 영어를 들으니 당황해 말도 버벅거렸지만 내가 직접 주문해서 먹으니 뿌듯했다.

다음으로 라구나 뮤지엄과 풀게티 뮤지엄, 두 곳 박물관에 갔다. 라구나 뮤지엄은 서부 최대 규모의 박물관으로 모든 전시물을 다 보려면 3일이 걸린다고 한다. 우리는 일부만 관람했는데 TV로만 보던 작품들을 실제로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그리피스 천문대에서는 LA 야경을 관람했다. 넓디 넓은 LA의 야경에 입이 떡 벌어졌다.

셋째 날은 칼텍과 라스베이거스에 갔다. 칼텍은 공대답게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UCLA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학교였다. 라스베이거스는 정말 환상적인 도시였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그대로 재현해놓은 호텔, 벨라지오 분수쇼, 대전의 스카이로드와 비슷한 LG전자 LED 쇼 등 개성 넘치는 호텔들과 화려한 야경

은 잊지 못할 장면이었다.

넷째 날, 대망의 그랜드캐니언에 갔다. 4시간 반을 달려 애리조나 주로 이동해 만난 그랜드캐니언. 전망대에 올라 바라본 경관은 마치 그랜드캐니언을 배경으로 하는 벽지를 붙인 벽처럼 가짜 같았다. 내가 실제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의심될 정도로 경이로웠고 신비했다. 웬지 모를 먹먹함이 밀려오기도 했다.

그랜드캐니언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한 채 3시간 반을 달려 호텔로 갔다. 버스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다.

다섯째 날, 캘리포니아 은광촌에서 옛날은 광개발에 쓰였던 건물들과 흔적들을 볼 수 있었다. 서부영화의 한 장면 같은 풍경이었다. 이날 기억에 남는 것은 서부에서 유명한 햄버거집인 IN and OUT에서 먹은 햄버거다. 롯데리아에선 느낄 수 없는 고기의 진한 육즙이 인상적이었다.

여섯째 날은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해 스탠포드대학, UC버클리대학, 실리콘밸리 등을 방문하며 바쁜 일정을 보냈다. 스탠포드대학에선 한국인 학생이 직접 캠퍼스 가이드를 해주었고, UC버클리에선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인 형이 입시 설명을 해주었다. 두 분 모두 미국 대학생활에 대해 유익한 말씀을 해주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세계적 대기업 인텔을 방문해 인텔의 역사와 경영철학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이날 저녁에는 동문 선배님들과 만찬을 가졌다. 선배님들 모두 나이가 지긋하심에도 활기 차고 기쁘

게 후배인 우리들을 맞아주셨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뜻 깊은 자리였다.

드디어 마지막 날,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인 금문교를 관람하는 것을 끝으로 일주일 간의 미국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이번 탐방에서 느낀 점을 정리하자면 우선 너무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다. 내가 미국에 와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고 겪은 모든 것들이 충격이자 교훈이었다. 또 미국의 대학은 내가 상상하던 대로 전형적인 평화로운 캠퍼스의 모습이였다. 잔디밭에 누워 토론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며 실험실에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탐구하는 곳이었다. 4개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다면 학생들이 자기가 원해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들을 보면서 반성했다. 덕분에 앞으로 더 목표의식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일주일에는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였다.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즐겼던 일주일이었다. 또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고, 내면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수기를 쓰다보니 미국에 가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가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이번 경험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신한철(3학년)

2015년 대능선생님상 여섯 분 시상

‘2015년 대능선생님상’ 시상식이 지난 2월 25일 모교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대능선생님상’은 윤호일(40회·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동문이 은사님의 큰 사랑에 보답하고, 국가 사회에 기여할 후진들을 양성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2008학년도에 개설했다.

시상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및 학교발전에 기여한 선생님을 선발, 상패와 총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았다. 수상자로 2014학년도

에 학력신장 최우수교사 3명(이돈우, 박동춘, 성수향),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최우수교사 2명(이정수, 김성은), 진로진학지도 최우수교사 1명(임성희) 등 총 6명을 선발, 상패와 포상금을 수여했다. 또 서울대에 진학한 허준 학생에게는 장학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윤호일 동문은 2008학년도부터 매년 1,0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출연하고,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 매년 370만원씩 15년 간 총 5,600



왼쪽부터 이정수·김성은·박동춘 선생님, 이흥구(교감), 김현규(교장), 성수향·이돈우·임성희 선생님

여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윤 동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 미국 노트르담대학교

Juris Doctor 취득, 미국 Baker & McKenzie 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화우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94회 졸업식... 졸업생 총 3만8,053명으로



제94회 졸업식이 학생, 학부모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5일 본교 강당에서 열렸다.

신현일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훌륭한 후배를 키워내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치하하고, 졸업생들에게는 ‘명문전통의 대전고 후배가 됩’을 축하했다. 신 회장은 “새로운 경쟁의 세계는 지난 3년간 함께한 소중한 친구와 새롭게 만나게 될 선배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며 “총동창회가 후배들의 앞날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영예의 능화상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 합격한 나승찬 군이 수상했다.

이 자리에는 또 장영철 재경동창학회 이사장이 장학생 4명에게 장학증서를, 박용범 대능장학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박종윤 이사장을 대신해 참대능봉사상을, 이진원(58회) 육군 소장이 육군참모총장상을, 윤종준(63회) 해군대령이 해군참모총장상을 대신 전달했다. 한편 졸업식이 끝난 후 바로 94회 졸업생 전원의 총동창회 입회식이 거행되었다. 이번 졸업으로 모교의 총 졸업생수는 3만8,053명이 되었다.

2015학년도 입학식



2015학년도 모교 신입생 입학식이 지난 3월 2일 오전 학교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입학식에는 신입생 439명을 비롯해 김현규(53회) 교장, 이홍구(55회) 교감, 교직원 및 학부모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재경동창장학회 2015년도 장학금 전달식



재경동창장학회(이사장 장영철·45회)는 지난 3월 13일(금) 오후 6시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대립정으로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배들을 초청,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재경동창장학회는 지난해부터 모교 출신으로 수도권대학에 재학 중인 후배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배는 지난해에 이어 4명이었다.

장 이사장은 또 모교 출신 1명이 고대 교우회 장학금을 받도록 주선했다.

장 이사장은 또 모교 출신 1명이 고대 교우회 장학금을 받도록 주선했다.

대전고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출범



원활한 모금 위해 재단 설립키로

모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4월 29일 오후 6시30분 신현일(48회) 총동창회장, 김현규(53회) 모교 교장, 추진위원 27명 등 총32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먼저 추진위원회 명칭을 기념사업회로 변경하고 기구를 확장해 회장, 자문위원 등 기념사업회 임원을 신설했으며, 기존의 추진위원회 위원수를 늘려 기념사업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 역할을 하도록 했고 추진위원회 산하에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운영규정 개정 후 추진위원들은 기념사업회 회장에 총동창회장과 재경동창회장을 역임한 김각영(41회) 전 검찰총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모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는 개교 100주년 기념식, 음악회 등 각종 기념행사 개최, 개교 100년사 및 회원 명부 발간, 개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

및 총동창회관 리모델링, 재경동창회 사무실 마련, 모교 신축 기숙사 내부 물품 지원, 모교 및 동창회 발전기금 조성 등의 계획을 세웠으며 기념사업 소요예산으로 60억원을 책정하고 기별동창회 분담금, 개인 모금, 동문 및 외부인 기부 등으로 소요예산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어 100주년 기념사업기금의 원활한 모금을 위해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기금의 원활한 모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부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야 하나 동창회에서는 기부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어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부득이한 조치이다.

위와 같은 안건 심의·의결 후 김현규(53회) 모교 교장이 모교의 국제교전환 신청 경과와 신청 이유 및 국제교전환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하고 모교가 국제교 지정이 될 경우 교명, 교가, 교훈, 교표, 졸업기수 등 모교의 정체성에 관한 사항은 동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모교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결정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선택(53회) 대전광역시장 특강

모교는 지난 2월 24일 권선택(53회) 대전광역시장을 초청해 신입생 440여명을 대상으로 ‘선배 초청 진로 특강’을 실시했다.

권 동문은 이날 특강을 통해 인생 선택, 학교 선택으로서 후배들에게 “고등학생은 꿈

을 가장 많이 꾸어야 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해야 하는 시기이며,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기”라며 “꿈이 없는 학창 시절은 죽어있는 삶이나 마찬가지이니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항상 꿈을 꾸는 생활을 습관화하라”고 격려했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를 찾으십니까?
고객을 기다리는 서비스가 아닌 찾아가는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세무대리 및 상담, 법인설립, 재산제세(양도, 상속, 증여) 전반, 세무문제 조력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38 둔산메트로빌딩 4층 419호
T:042-489-2509 F:042-489-2507 E:anyeo@ontac.co.kr



세무법인 **오늘**
TAX MANAGEMENT CORPORATION

대표세무사
여인준(76회)
대전지점 010-5634-2509



구당 침뜸, 무극보양뜸

한국정통침구학회 대전·충청지부

지부장 **박제구**(40회)

〈교육문의〉 042-528-7909

홍성지회

◆전입 및 전출

전출 : 김봉기(60회) 신한은행 고척 사거리지점장

전입 : 신광섭(66회) KT 홍성지사

◆애사

• 이준수(60회) : 부친상(2. 16)

35회

◆행사

• 2014년도 정기총회 겸 송년회

일시 : 2014년 12월 18일 12:00

장소 : 태화장

• 대신회 부부동반 신년 모임

일시 : 2015년 1월 15일 12:00

장소 : 장어대가

◆주소 및 연락처 변경

• 김태우 :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114번길 47, 205-404(송촌동, 선비마을 2단지A)

• 김대규 : 010-4429-0705

• 권영준 : 010-4764-1914

• 조한기 : 010-3427-6449

◆경사

• 조봉현 : 자훈(3. 28)

36회

◆전반기 이사회

일시 : 2015년 4월 1일 12:00

장소 : 36회동창회 사무실

참석 : 역대 회장단 및 각 동호회 회장, 찬조유공회원

안건 : 36회 운영의 건

– 총회 결산보고 및 회비협조 건

– 모교 100주년 기념행사의 건

◆애사

• 권성원 : 모친상(2. 28)

38회

◆재경동창회 총회

일시 : 2014년 12월 5일 12:00

장소 : 군인공제회관

임원선출 : 회장 배수남, 총무 송재근, 감사 이영구 이희원

참석인원 : 60명(대전 동창회장 이용만, 최인수 참석)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

일시 : 2015년 1월 15일 18:00

장소 : 중경

참석인원 : 이용만 회장 외 33명 (재경 동창회장 배수남, 총무 송재근 참석)

◆축하

김수동 : 제14회 충남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개인단식 70대 1, 2부 1위

39회

◆재경동창회 정기총회

일시 : 2014년 12월 4일 18:00

장소 : 군인공제회관

임원선출 : 회장 백남원, 총무 정진범

◆대전동창회 신년교례회

일시 : 2015년 1월 17일 12:30

장소 : 미가사랑

참석인원 : 32명

◆말토회(분당·용인지역 동문 모임)

오랫동안 총무로 봉사한 송윤호 동문 회장 취임

◆애경사

• 권승원 : 본인상(2014. 12. 7)

• 구재본 : 자훈(2014. 12. 20)

• 김용진 : 본인상(1. 2)

40회

◆행사

• 대전동문 송년의 밤(2014. 12. 18)

• 재경동문 송년의 밤(2014. 12. 22)

• 출판기념회(3·8민주의거기념사업회/1. 22)

◆애경사

• 유석천 : 본인상(2014. 10. 25)

• 성기우 : 본인상(2014. 11. 7)

• 백일진 : 자훈(2014. 11. 8)

• 한영희 : 자훈(1. 25)

• 김태진 : 자훈(1. 30)

• 송규행 : 자훈(1. 31)

41회

◆축하

• 송성헌 : 대전대덕문화원 원장 연임

• 이양희 :한국사료협회 회장 취임

42회

◆행사

• 대전동창회 송년회 : 2014. 12. 12

• 재경동창회 신년회 : 1. 14

◆애사

• 김도정 : 본인상(1. 22)

• 권고원 : 본인상(1. 28)

44회

◆연락처 및 주소변경

• 표종환 : 010-8905-9219

• 권종우 :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분당로263번길 13, 615-1102(서현동, 효자촌 대우A)

• 김순중 : 서울 송파구 토성로 37, 303-401(풍납동, 현대리버빌A)

• 김중건 : 서울 강남구 언주로98길 39-9, 401호(역삼동, 아미빌라)

• 민경열 : 강원도 원주시 단관공원길 111, 102-601(단구동, 중앙하이츠A)

• 이의영 : 경기도 과천 윗배랭이길 54, 명가 301호(문원동)

• 이창주 : 대전 서구 둔산남로 127, 202-1305(둔산동, 목련A)

◆애경사

• 맹일영 : 본인상(2014. 12. 8)

• 이규혁 : 자훈(2014. 12. 21)

• 신인철 : 모친상(2. 9)

• 이제억 : 모친상(2. 13)

45회

◆2014년도 정기총회

새로 마련한 대사동 소재 45회동창회 사무실에서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데 정기총회 개최. 결산보고에 이어 지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뒤 2015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난상토론 끝에 현 회장단이 1년 더 유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

감사 : 조규천

◆재경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재경 45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2014년 12월 16일 총무로 대림정 2층에서 동기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운영 동기의 사회로 열려 총회 안건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2년 임기를 마친 한방우 회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함. 차기 감사로 오태석 동기가 선임됐으며 장태장 감사는 연임됨.

2부에서는 유인협 신일병원 원장의 건강 관리에 대한 강의 후 최관영 동문이 흘러간 명곡을 기타로 연주함.

〈협찬〉

• 안정림 대한화장품협회 상근부회장 : 화장품세트 다수

• 홍성일 (주)태평양금속 대표이사 : 선물세트

• 권재석 (주)RPS Solution 대표이사 : 빔프로젝트

• 손창록 전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 선물세트

◆회원동정

• 장영철 : 2010년 11월부터 대한당구연맹 회장 재직 중으로 2013년 10월 아시아캐롬당구연맹 회장에 취임, 2014년 9월에는 세계캐롬당구연맹 부회장에 취임

• 안정림(대한화장품협회 상근부회장) : 2013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화장품 수출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화장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 강현모 : 제48회 국제문화미술타전 한문 서예부문 은상 수상

• 유근영 화백 전시회 : 2014. 4. 16~5. 14(아트팩토리 서울), 2014. 10. 17~12. 14(아트센터 화이트블럭)

• 변무섭 : 뎀(DIM)색소폰합주단 연주회 (2014. 11. 30)

• 성기석 : 흑백사진 7인전 ‘시간속으로’(2. 6~11)

◆주소 및 연락처 변경

• 정성용 : 세종시 달빛로 39, 209-1604(종촌동, 가재마을 2단지)

• 조규천 : 010-3040-8000

◆45산악회 소식

창립 10주년을 맞아 밀레(아웃도어 매장)에서 주최하는 영험길과 함께하는 한국명산 16좌(2014. 2 칠갑산~2015. 5 계룡산) 원정대에 회원 중 12명이 매월 참가하여 체력단련은 물론 전국 각 지역 산악인들과 우의를 다졌다.

◆애경사

• 임승재 : 장모상(2014. 1. 17)

• 김규상 : 여훈(2014. 2. 8)

• 권병수 : 모친상(2014. 2. 16)

• 장성근 : 자훈(2014. 3. 15)

• 이만희 : 장모상(2014. 3. 15)

• 김창남 : 장인상(2014. 5. 21)

• 홍기운 : 자훈(2014. 5. 31)

• 연진희 : 자훈(2014. 6. 1)

• 김태식 : 여훈(2014. 6. 7)

• 강문식 : 본인상(2014. 6. 16)

• 강일구 : 자훈(2014. 8. 23. / 10. 25)

• 신성수 : 모친상(2014. 10. 8)

• 김종목 : 여훈(2014. 10. 18)

• 장성근 : 자훈(2014. 10. 18)

• 박두희 : 자훈(2014. 10. 25)

• 문황연 : 장인상(2014 11. 21)

• 최상열 : 자훈(2014. 12. 13)

• 한상욱 : 여훈(2014. 12. 20)

• 손중희 : 자훈(2014. 12. 28)

• 전철수 : 자훈(1. 10)

• 조흥구 : 자훈(2. 7)

• 신 철 : 부인상(2. 20)

• 최관영 : 자훈(2. 28)

46회

◆재경 송년모임

일시 : 2014년 12월 11일 19:00

장소 : 강남구 제우스스타

참석 : 총 87명(부인 13명)

안건 : 2015 재경 46회 임원선출

회장 이재준, 총무 이원오(유임), 감사 박종규

송년 특별 이벤트로 이형석 동문(전 전남대 음대 교수) 바이올린 특별연주

◆2015 대전 정기총회

일시 : 2015년 1월 16일 19:00

장소 : 둔산 스텝

참석 : 35명(부인 5명)

안건 : 2014 회계결산 및 감사보고

◆회원동정

• 김길동 : 학생 교복가 인화에 선도적 역할(MBC 시사2580 14. 12. 2 방영).엘리트 학생복’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김 동문이 생산공장과 대리점을 직접 연결하는 거래망을 구축(생산자조합), 올해부터 시작하는 교육부 입찰(학교별)에서 전국 500여 학교를 낙찰받는 등 학생들의 교복가 인화에 선도적 역할을 함.

• 이시구 : (주)계룡건설 대표이사를 퇴임 (2014. 12. 31) (주)동성건설 회장에 취임 (천안 서북구 성정동 소재)

• 손 정 : (주)KR산업(경기도 이천 소재) 대표이사를 퇴임(2014. 12. 31)하고 동사고문에 취임

◆애경사

• 권 능 : 모친상(2014. 11. 20)

• 박노환 : 여훈(2014. 11. 23)

• 최용성 : 모친상(2014. 12. 31)

• 장세진 : 자훈(1. 10)

• 박규태 : 여훈(1. 2)

• 이석재 : 장모상(1. 30)

• 성열호 : 본인상(2. 5)

• 김진오 : 모친상(2. 17)

47회

◆2015년 신년교례회

일시 : 2015년 1월 19일 18:30

장소 : 계룡스파텔1층 무궁화홀

참석인원 : 38명



- ◆애경사
 - 박노용 : 여훈(2014. 11. 22)
 - 김용진 : 모친상(2014. 12. 15)
 - 윤석주 : 자훈(2014. 12. 20)
 - 김연각 : 여훈(2014. 12. 21)
 - 민동기 : 자훈(2014. 12. 27)
 - 손이연 : 여훈(2014. 12. 27)
 - 이명구 : 장인상(2014. 12. 30)
 - 박중서 : 장모상(1. 11)
 - 이정찬 : 자훈(1. 25)
 - 조영수 : 장모상(2. 19)
 - 박정운 : 모친상(2. 21)
 - 오한호 : 장모상(2. 21)
- ◆연락처 변경
 - 박윤찬 : 010-5516-0745

- 48회
 - ◆행사
 - 추계 문화유적지 답사
 - 일시 : 2014년 10월 9일
 - 참석인원 : 32명
 - 재경동창회 가을단풍맞이 행사
 - 일시 : 2014년 10월 25일
 - 장소 : 충주호, 문경새재 트래킹
 - 참석인원 : 49명
 - 대전-재경 합동등산행사
 - 일시 : 2014년 11월 1일
 - 장소 : 계룡산 국립공원 빈계산
 - 참석인원 : 66명
 - ◆재경동창회 임원개선
 - 회장 신동선, 수석부회장 장길성
 - ◆회원동정
 - 이신석 : 대전의료원 설립실무협의회 위원 (2014. 10. 2 위촉)

- 49회
 - ◆개별모임
 - 재경 송년모임
 - 일시 : 2014년 12월 3일 18:00
 - 장소 : 한일장(종로구 관수동)
 - 특강 : 김선경 동기(개성공단 내 ㈜대일섬유 상무)
 - 재경 당구대회
 - 일시 : 2014년 12월 13일 12:00~18:00
 - 장소 : 대성당구장
 - 참석인원 : 21명
 - 대전동기회 12월 송년모임
 - 일시 : 2014년 12월 20일 18:00
 - 장소 : (주)SNG(정기섭 동문 회사)
 - 참석인원 : 53명(부인 동반 15명)
 - 협찬 : 정기섭, 주재오, 오지영, 이기우, 이희권, 강인규
 - 대전동기회 1월 정기모임
 - 일시 : 2015년 1월 19일 18:30
 - 장소 : 흥남면옥
 - 참석인원 : 28명

- 재경 서부모임 신년하례회
 - 일시 : 2015년 1월 31일 17:00
 - 장소 : 시골밥상
- 대전동기회 2월 정기총회
 - 일시 : 2015년 2월 25일 18:30
 - 장소 : 평양면옥
 - 회의 안건 : 2014년 결산 및 회계감사
- 재경 등산모임 산사랑 태백산 눈꽃산행
 - 일시 : 2015년 2월 28일 7:00
- ◆애경사
 - 심규선 : 자훈(2014. 12. 14)
 - 김종섭 : 장인상(2014. 12. 24)
 - 신웅순 : 여훈(2. 7)
 - 신중호 : 여훈(2. 7)
 - 조남원 : 여훈(2. 8)
 - 송용호 : 여훈(2. 28)

- 51회
 - ◆재경 신년회
 - 일시 : 2015년 2월 6일
 - 장소 : 공군회관
 - 참석인원 : 94명
 - ◆축하
 - 김보균 : 은탑산업훈장 수훈
 - ◆애경사
 - 조남돈 : 자훈(2014. 12. 7)
 - 양상규 : 장모상(2014. 12. 9)
 - 송신현 : 여훈(2014. 12. 20)
 - 변상무 : 여훈(2014. 12. 20)
 - 안성호 : 여훈(2014. 12. 27)
 - 이철재 : 여훈(1. 3)
 - 전승범 : 부친상(1. 14)
 - 길재성 : 장인상(1. 19)
 - 이명복 : 부친상(2. 8)
 - 최대영 : 여훈(2. 7)
 - 배재문 : 여훈(2. 14)
 - 강기정 : 장모상(2. 28)
 - 김희중 : 여훈(3. 7)
 - 김향배 : 자훈(3. 7)

- 53회
 - ◆임원개선
 - 대전 : 회장 김윤동, 총무 이승복, 간사 서우석, 박동주
 - 재경 : 회장 이상덕, 총무 강신훈
 - ◆개별모임
 - 오삼산악회 : 고문 최남식, 회장 장명근, 부회장 김용주, 산악대장 이세형, 총무 이재운
 - 빌모회(당구모임) : 회장 겸 총무 송열호
 - ◆회원동정
 - 우제환 : 대전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3. 1)
 - 박종오 : 송촌중 교장(승진, 3. 1)
 - 윤제선 : 구룡중 교장(3. 1)
 - 최인화 : 관저고 교장(3. 1)
 - ◆축하
 - 박병학 : 한국관악협회 주관 '작곡부문 대한민국 관악상' 수상(1. 31)
 - 류근철 : 배재대 마케팅학 박사학위 취득(2. 12)
 - 이승복 : 충남대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2. 25)

- ◆애경사
 - 서병현 : 자훈(2014. 11. 29)
 - 오홍근 : 자훈(2014. 12. 20)
 - 류해선 : 자훈(2014. 12. 20)
 - 최윤목 : 자훈(2014. 12. 21)
 - 이상덕 : 장모상(2014. 12. 22)
 - 김용주 : 모친상(2014. 12. 23)
 - 오영욱 : 자훈(2014. 12. 28)
 - 김동호 : 모친상(2014. 12. 30)
 - 이인복 : 자훈(1. 3)
 - 최원배 : 장모상(1. 17)
 - 류지훈 : 자훈(2. 7)
 - 김사인 : 부친상(2. 15)
 - 임희주 : 장모상(2. 22)
 - 김형중 : 자훈(2. 28)

- 54회
 - ◆졸업 40주년 기념행사
 - 일시 : 2015년 10월 9일
 - ◆임원
 - 대화회장 진승식, 대전총무 송일섭
 - 재경회장 신응호, 재경총무 전영화
 - 졸업 4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장 조영환
 - ◆애경사
 - 박봉석 : 여훈(2014. 12. 6)
 - 오익균 : 장모상(2014. 12. 9)
 - 백동기 : 여훈(2014. 12. 13)
 - 오성국 : 장인상(2014. 12. 13)
 - 김용구(7번) : 장인상(2014. 12. 15)
 - 이범태 : 여훈(2014. 12. 27)
 - 박종대 : 장인상(1. 16)
 - 오성국 : 본인상(1. 18)
 - 민경원 : 부친상(2. 1)
 - 오경호 : 장인상(2. 1)
 - 양재득 : 부친상(2. 11)
 - 이병주 : 부친상(2. 15)
 - 장병환 : 모친상(2. 22)
 - 김세중 : 여훈(2. 28)

- 56회
 - 재경 송년회 : 롯데호텔(2014. 12. 1)
 - 대전 송년회 : 태화장(2014. 12. 5)
- ◆회원동정
 - 황인호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연구소장(1. 2)
 - 박재성 :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제14대 회장 취임(1. 2)
- ◆개별모임
 - 삼목포럼 송년회 : 명동칼국수(2014. 12. 18)
 - 56당구회(대전) 송년회 : 프로당구클럽(2014. 12. 27)
 - 삼목포럼 2015년 신년모임 : 명동칼국수(1. 15)
 - 재경56산악회 2015년도 신년 산행 : 용마야차산(1. 4)
 - 56산악회 사산제 및 1월 정기산행 : 계족산(1. 11)
 - 재경56산악회 2월 산행 : 남한산성(2. 1)
- ◆애경사
 - 정석환 : 장인상(2014. 11. 27)
 - 최예영 : 부친상(2014. 11. 30)
 - 장경식 : 모친상(2014. 12. 01)

- 김일휘 : 부친상(2014. 12.04)
- 이병돈 : 모친상(2014. 12. 13)
- 이규년 : 장모상(2014. 12. 13)
- 박래봉 : 모친상(2014. 12. 17)
- 오탁진 : 여훈(2014. 12. 20)
- 이동률 : 장모상(2014. 12. 23)
- 송석현 : 부친상(1. 05)
- 김용동 : 여훈(1. 10)
- 주영철 : 모친상(1. 15)
- 나한엽 : 자훈(1. 31)
- 남성현 : 자훈(1. 31)
- 김선동 : 자훈(1. 31)
- 김관우 : 모친상(2. 2)
- 조동섭 : 본인상(2. 4)
- 권선진 : 자훈(2. 7)
- 양무열 : 여훈(2. 7)
- 강전범 : 자훈(2. 14)
- 김용배 : 여훈(2. 14)
- 이영수 : 부친상(2. 16)

- 57회
 - ◆임원개선
 - 대전 : 회장 진규현, 총무 연규양
 - 재경 : 회장 박찬호, 총무 유승호
 - ◆회원동정
 - 박동익 : 평화통일 기반구축 기여 공로로 대통령표창 수상(2014. 12. 10)
 - 광영교(전 대전시의회 의장) : 의정자치부 문 대상 수상(시민기자협회 주관/2014. 12. 9)
 - 민병관 : 중앙미디어그룹 제이콘텐츠리 대표이사 취임(1. 1)
 - ◆행사
 - 재경산악회 신년 산행 : 관악산(1. 17)
 - 대전산악회 신년 산행 : 계룡산 삼불봉(1. 25)
 - 장학기금위원회 해단식(1. 30)
 - 대전 동창회 남해여행 : 2015년 4월 12일(60여명 참가)
 - ◆애경사
 - 류지산 : 장인상(2014. 12. 19)
 - 이경호 : 장인상(1. 24)
 - 박노현, 박노수 : 모친상(1. 6)
 - 김천호 : 장인상(2014. 12. 12)
 - 송인식 : 부친상(2014. 12. 17)
 - 김기성 : 여훈(2014. 12. 28)
 - 박춘섭 : 여훈(2014. 12. 28)

- 59회
 - ◆임원개선(2015~2017년)
 - 대전 : 회장 나경수, 총무 김석주 허순범
 - 서울 : 회장 김주현, 총무 이영권
 - ◆행사
 - 정기총회 : 만년동 베스타부페(2014. 12. 11)
 - 59산악회 우산봉 등반(1. 3)
 - ◆2015년 연회비 납부 안내
 - 서울, 경기 거주자 : 100,000원 (신한은행 : 110-258-880304 김신철)
 - 서울, 경기 거주자 외 : 80,000원 (농협 453039-52-157331 김항석)
 - ◆59회 네이버 카페 가입 안내
 - <http://cafe.naver.com/daego59>
 - 대고59회 동기들의 소식을 알리는 카페

입니다. 모두 가입해주세요

62회

◆대전 정기총회

일시 : 2014년 12월 10일
장소 : 만년동 번지농장 돌판아구찜
임원개선 : 회장 태영호, 총무 김현철

◆재경 정기총회

일시 : 2014년 12월 2일 19:00
장소 : 양재동 갈비사랑
참석 : 35명
회장단 인선 : 회장 최기록, 총무 김선태

◆동기 모임

일시 : 2015년 3월 19일 19:00
장소 : 한우물순대

◆애경사

- 우세환 : 부친상(2014. 11. 30)
- 최창규 : 부친 팔순연(1. 16)
- 김갑환 : 장인상(1. 25)
- 윤덕중 : 모친상(2. 16)

◆대전동기회 자동이체 안내

국민은행 96262-198362
(예금주 62회동기회)

68회

◆한마음행사

일시 : 2015년 3월 15일 10:00
장소 : 모교강당
참석 : 100명
행사내용 : 가족과 친구가 함께하는 명랑
운동회 등 행사진행으로 즐거움과 단합을
도모

73회

◆재경동기회 창립총회

일시 : 2015년 1월 21일

장소 : 두부촌(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 회칙 제정
- 임원 선출 : 회장 유인상, 총무 임근택,
감사 류상훈, 이사 조성빈
- 대전에서 최영균 회장 및 친구들이 서
울까지 격려차 방문 및 격려금 전달
- 72회 재경동기회에서 신광순 회장 및
오상용 총무가 참석하여 격려금 전달
- 초대 재경회장으로 선출된 유인상 회장
은 "73회 재경동기회를 잘 이끌어 나가
73회 동기회와 총동창회 및 모교발전
에 기여하자"고 당선의 말을 전했다.

재경 모임

육능회 정기총회

이광우(63회) 신임 회장 선출

2014년 12월 22일(월) 19시부터 강남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자체 인원
130명, 합창단 포함 150여명이 모여 친
목을 다지고 우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년간 육능회장을
맡아온 남궁은(61회) 회장 후임으로 이광
우(63회) 육능회 고문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철재(51회), 서용주(54회), 김영대(53
회) 오능회장, 김용덕 재경총동창회 사무
처장, 김홍환 오능회 사무국장이 참석해
축하해주었다.

지역·직능 모임

◆육능회 정기총회 및 송년행사

일시 : 2014년 12월 22일 19:00
장소 : 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
안건 : 신임회장 선출 등
회장 이광우(63회), 총무 김금배(66회)

◆오능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일시 : 2015년 1월 27일 19:00
장소 : 진진바라(역삼역)
안건 : 신임회장 선출 등
회장 이철재(51회), 사무국장 김홍환(58회)

◆안양지회 신년교례회

일시 : 2015년 2월 12일 19:00
장소 : 안양예집

안건 : 신임회장 선출
회장 이호만(50회), 총무 정재필(57회)

◆고양·파주지회 신년교례회

일시 : 2015년 3월 12일 19:00
장소 : 수라한
회장 전병안(49회), 총무 김영중(58회)

◆삼수회 신년모임

일시 : 2015년 3월 18일 19:00
장소 : 세호보쌈(여의도)
안건 : 신년교례회
회장 송인규(58회), 총무 김금배(66회),
연성훈(70회)

◆천하대고 밴드 오프라인 모임

일시 : 2015년 1월 31일 18:00

장소 : 대도식당(논현동)
주요 활동가 : 김영석, 박경식(50), 이철
재, 전병구(51), 유하용, 정을석(52), 서용
주, 이민승, 이재성(54), 박두순, 서정선,
조한식(55), 김용덕(56), 김홍철, 송주영,
유성준(57), 김경수, 김홍환, 신광현, 안계
훈, 윤여정(58), 안희용(60), 송인철(62),
박기성(63), 김동진(66)
대전고 동문의 소통의 장인 천하대고
밴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20여명 참
석, 밴드에서 가장 선배인 박경식(50회)
동문이 식비를 부담했다. 그동안 동문 간
의 소통에 앞장서온 데 대해 격려하고
앞으로 더욱 많은 활동을 당부했다.

<기고>

인연(因緣)의 끈

吳吉子(37회 김종두 동문 부인, 前 논산여중 교장)



2014년 10월 26일 대능가족등반대회
에 참석했습니다. 2013년 재경동창회에
서 주관한 행사 때 서울에 가 남산에 오른
일도 있고요. 집안 살림 바쁜 일도 웬만하
면 뒤로 하고 마치 내 모교처럼 1년에 두
번 대전고총동창회의 모교 방문의 날 행
사와 등반대회엔 꼭 참석하려고 노력한
지 벌써 여러 해가 됐습니다.
꿈 많던 학창시절이 바로 어제 같은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나이가 많이 들었지
만 옛날 단골 소풍지였던 보문산이 그리
워 10월 26일 설레는 마음으로 자녀들 손
을 잡고 보문산 등산길에 올랐습니다.
집결지인 아의음악당에 도착해 보니 광
장을 가득 메운 동문들의 모습이 보였습
니다. 잠시 후 재경 동문들까지 합세하여
대성황을 이루니 부럽고 웬지 모르게 마
음이 뿌듯했습니다. 예전 그대로 반겨주
는 자연! 도취된 발길 따라 아름다웠던 추
억이 또렷한 기억으로 스쳐왔습니다.
1950~60년대 먹고살기 힘들었던 시절,
아무리 먼 통학거리라 해도 교통수단은

오직 도보였고 그러기에 우리 여학생들은
대전고등학교 농구장 옆길을 수없이 많이
오갔습니다. 또, 농구경기만 있으면 수업
제쳐놓고 단체응원은 필수였으니 재학 시
절에도 나는 대전고등학교를 많이 방문하
였고 바로 이때부터 ‘인연’은 시작되었나
봅니다(대전고 농구장은 당시 대전시의
농구 전용구장이었습니다).
전후(戰後) 폐허가 된 자리에 허스름
한 가교사. 어느 한 구석 명문학교라 이를
만큼 눈길 가는 곳은 없어도 이곳을 드나
드는 大高 학생에게만은 선망의 눈빛을
감출 수가 없었지요. ‘남학생’ 하면 오직
대전고 학생만 쳐다보게 되었답니다. 정
말 그 옛날이 회상됩니다.
전국학력경시대회 우승, 밴드부 앞세우
고 보무당당하게 행진하던 청룡기야구제
패 퍼레이드 등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
동 그야말로 팔방미인이러더니 거리에 나
선 대전시민들의 환호소리가 지금도 들리
는 듯 눈에 선합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
어진다고 했듯이 살다보니 소녀시절 인연

과 감상들이 살아 이어져 드디어 저는 대
전고등학교를 ‘선택’ 하게 되었나봐요. 그
래서 결국 결혼(37회 김종두)까지 했지요.
아들(70회)까지도 大高에 진학시켰습니
다. 손자도 입학시켜 3대를 이어가야겠는
데 지금 서울에 살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보문산 등산을 마치고 대전고 교문을
들어선 순간 짝짝 놀랐습니다. 옛 모습은
간 데 없고 대고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우아하게 자리 잡은 신
축교사, 첨단 각종 교육시설, 구태여 학
교 소개 설명을 듣지 않아도 변화된 모습
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더군요. 마치 여학
교처럼 깨끗하고 정돈된 분위기에 매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3·8민주의거 기념
탑 앞에 섰을 때의 숙연함. 그 누가 人文高
를 유약하다 말했던가? 나도 모르게 고개
가 숙여졌습니다. 결코 불의를 용서하지
않는 그 용기와 단결력은 다시 한번 명문
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의사자 세 분 동문
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그날
느낀 점을 누구에게 자랑할까 망설이다가
다음날 용기를 내어 교장실로 전화를 걸
었습니다. 급식실에서나 운동장에서 일사
불란하게 움직이며 성실히 봉사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찌면 그렇게 착하고 귀여운지
나도 모르게 같이 도와주면서 칭찬을 했
노라고요. 요즘 학생들 버릇없고 예의도

부족하여 인성교육의 결여를 말하는데 대
고 학생들에게서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도 학교 현장에서 경험한 바 있어 급
식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니 영양사
부터 조리사분들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진
실로 주인의식을 발휘하고 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급식실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취득했음을 그 후 알았
습니다만 이 모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어요. 훌륭하신 김현규 교장선생님의
탁월한 학교 경영력의 결실이고, 결국 명
문 대전고의 후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적이 바뀔 수는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동문애가 투철
하여 동창회가 활발한 학교를 보면 그 누
가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거의
고인이 되었기에 볼 수 없지만 수년 전까
지만 해도 일본인 동문들이 노구에도 불
구하고 모교를 방문하는 것이 역사 깊은
학교(대전중고, 강경상고 등)에서 종종
목적되곤 하였습니다. 역시 ‘인연’은 인
연인가 봅니다. 친구와의 인연, 동창과의
인연, 가족의 인연... 부디 우리 대전고등
학교총동창회가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
여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늦게나마 기원
하겠습니다. 끝으로 매년 행사 때마다 가
족까지 초청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 회장·총무 명단/기별 분담금 납부 현황

기수	성명	직책	기별분담금	모교지원금	등반대회	계
31회	정호영	기회장	면제			
31회	조주찬	기총무	면제			
35회	임태수	기회장	면제			
35회	권순원	기총무	면제			
36회	송병욱	기회장	면제			
36회	박연수	총무	면제			
37회	김시영	기회장	면제			
38회	배수남	기회장	면제			
38회	송재근	기총무	면제			
39회	백남원	기회장	면제			
39회	정진범	기총무	면제			
40회	윤석근	기회장				
40회	김주일	기총무				
41회	한창완	기회장				
41회	김원주	기총무				
42회	이세종	기회장	50	70		120
42회	조종호	기총무				
43회	이기협	기회장				
43회	하충렬	기총무				
44회	곽동근	기회장	100	70		170
44회	김전식	기총무				
45회	한방우	기회장	100			100
45회	송운영	기총무				
46회	이재준	기회장	100	70		170
46회	이원오	기총무				
47회	황인호	기회장	100	70		170
47회	김성호	기총무				
48회	신동성	기회장	200	70		270
48회	장길성	수석부회장				
49회	이재성	기회장/총무	200	70		270
49회	육근주	재무				
50회	박인규	기회장	200	70	50	320
50회	정범희	기총무				
51회	임헌준	기회장	200	70	50	320
51회	한윤우	기총무				
52회	김기남	기회장				
52회	이원건	기총무				
53회	이상덕	기회장				
53회	강신훈	기총무				
54회	신응호	기회장	200	70		270
54회	전영화	기총무				
55기	김성남	기회장	200			200
55기	정문호	기총무				
56기	조동인	기회장	200	70		270
56회	나한엽	기총무				
57회	박찬호	기회장	200	70		270
57회	유승호	기총무				
58회	도정화	기회장	200	70	50	320
58회	민경재	기총무				
59회	김주현	기회장	200	70		270
59회	이영권	기총무				
60회	김종철	기회장	200	70	50	320
60회	김석원	기총무				
61회	남궁은	부회장	200	70		270
61회	오수한	기총무				
62회	최기록	기회장	200	70	50	320
62회	김선태	기총무				
63회	이광우	기회장	200	70		270
63회	배성식	기총무	-			
64회	최태욱	기회장				
64회	서동환	기총무				
65회	김기영	기회장				
65회	최낙용	기총무				
66회	이근구	기회장	100			100
66회	이상세	기총무				
66회	이승주	기총무				
67회	이선호	기회장				
67회	이건형	기총무				
68회	김기태	기회장				
68회	장연태	기총무				
69회	김대환	기회장	100	70	30	200
69회	유영근	기총무				
69회	류문선	기총무				
70회	강종빈	기회장				
70회	김규형	기총무				
72회	신광순	기회장	60			60
72회	오상용	기총무				
73회	유인상	기회장				

(단위 : 만원)

기수	성명	직책	기별분담금	모교지원금	등반대회	계
73회	임근택	기총무				
74회	이근평	기총무	면제			
75회	박정완	기총무	면제			
76회	노희철	기총무	면제			
80회		기총무	면제			
81회	김성엽	기총무	면제			
82회	이지원	기총무	면제			

기별 분담금 (단위 : 만원)

구분	기별분담금	모교지원금	등반대회	정기총회	계
35~39회	-	70	20		90
40회	50	70	20		140
41~43회	50	70	50		170
44~47회	100	70	50		220
48~64회	200	70	50		320
65~73회	100	70	30		200

2015 회계연도 각종 회비 납부 현황

부회장 회비 납부 현황(100만원) (2015. 5. 10 현재)

기 수	성 명
46회	조용건
48회	이래훈, 이선복, 조남용
51회	김보균, 배재문
52회	이대복
53회	양호승
54회	정영재
56회	류한호, 송서영
57회	오세현, 육현표
58회	조철연
59회	송세빈, 이건행
60회	김대현, 송종환
68회	차정훈

지도위원 회비 납부 현황(30만원)

기수	성 명
34회	곽영달, 정용삼, 최기준
36회	이근영
40회	김휘배, 김명석
43회	우정환
48회	류제민
50회	민진기, 이선종
54회	서용주

자문위원 회비 납부 현황(30만원)

기수	성 명
32회	장흥진
38회	유인의, 이종상
40회	이정치
42회	홍순호
47회	이기문
48회	김정일
52회	이명수
53회	이인복
56회	여형구
59회	이운룡

이사 회비 납부 현황(20만원)

기수	성 명
31회	성백전
36회	한광동
40회	박용철, 이세복
41회	우영화
43회	박재하
44회	이운영
45회	권재석
47회	김동욱
51회	김대식
55회	김선진, 안상함
56회	김일후, 김현무, 송인수, 신희수
58회	송인규
59회	김명환, 배기명
60회	이명호
63회	박승하
68회	김동범, 장연태

2014년 정기총회 및 대능인의 밤 행사 찬조

<현금> (단위 : 만원)

기수	성명	직장/직책	금액
41회	김각영	상임고문	30
48회	신현일	총동창회장	300
45회	한준환	에이플러스원 대표	50
46회	강형빈	토넥스 회장	100
47회	오세빈	변호사	50
48회	목이균	부회장	100
50회	박철근	부회장	50
51회	김보균	(주)캠트로닉스 회장	300
55회	권혁승	하나카드 부사장	30
56회	권순일	대법관	300
58회	조철연	삼화회계사 대표	50
김현규 모교 교장			100
대전고총동창회			100
대전고동문합창단(단장 박현영)			100
오능회(회장 이철재)			100
육능회(회장 남궁은)			100
계			1,860

<광고> (단위 : 만원)

기수	성명	직장/직책	금액
40회	윤호일	(유)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100
53회	양호승		
44회	송재준	한모기술(주) 대표이사	200
44회	김순중	(주)선보주류교역 대표이사	100
49회	권오상	(주)아성코리아 대표이사	300
49회	이상헌	(주)두루그룹 대표이사 회장	300
56회	전의순	해커스교육그룹 상무이사	500
56회	손 윤	조세전문그룹 오늘택 대표이사	200
58회	김경수	(주)팩컴코리아 대표이사	200
58회	김덕수	국민카드(주) 대표이사	300
60회	김대현	(주)페이펄유통 대표이사	100
61회	이의범	SG그룹 대표이사 회장	500
계			2,800

<물품>

기수	성명	협찬품
45회	장영철	상임고문 / 최고급 당구구 2
46회	이상량	필립스주전자 등
47회	김성준	방한조끼 50벌
47회	서용원	인천공항 하이아트 뷔페권
48회	문덕규	상품권 10
50회	박경식	조루치료 및 귀두확대 시술권 1
51회	조석준	독춤크리에이터 SW 5
51회	김영태	명품 장류 5
55회	신일영	치아미백 시술권 5
56회	권인채	화장품 4종세트 4
56회	정필경	제습기
56회	오상영	외환은행 캘린더 400부
58회	김덕수	국민카드 캘린더 200부
60회	김수범	한방체질공진단 복부, 얼굴 등 지방제거 3회 시술권
63회	박승만	키크는 갈숨제 10
동창회		헤지스 방한모자 5 커피포트 1 / 닥스 손수건세트 5

70, 71, 72회에서
《大稜》제166호 광고를
협찬해주셨습니다.

〈대능〉제166호는 70회 동창회(회장 이상민, 재경회장 강종빈)와 71회 동창회(회장 배지현, 재경회장 김두윤), 72회 동창회(회장 정현필, 재경회장 신광순)의 광고 협찬으로 발행 및 발송에 드는 비용 대부분을 충당했습니다. 〈대능〉의 지속적인 발간을 위해 기별동창회에서 광고를 협찬하는 전통에 협조해준 70, 71, 72회 동창회에 감사드립니다. 〈대능〉광고는 제142호부터 2~3개 기수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협찬하고 있습니다. 제167호는 44, 45, 46회에서 협찬해주실 차례입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충동창회 기별 임원 현황		
가수	구분	성 명
20회	고문	박원석
28회	고문	박영규
29회	고문	천영성
30회	이사	서대석(기회장)
31회	고문	박준병, 이인구
	이사	이택신(기회장)
32회	고문	나웅배
	이사	윤기한(기회장)
33회	고문	박종윤
	이사	김주경(기회장)
34회	고문	송자
	이사	김용환(기회장)
35회	고문	이동호
36회	자문위원	권선우, 김종문(광주지회장), 임갑환, 임종원
	이사	심규섭
37회	고문	유일준(기회장)
	자문위원	이규성
38회	고문	김중두, 최복영(부여지회장)
	이사	이윤기(기회장)
39회	고문	김중구, 심대평
	자문위원	가재환, 송인섭, 신석정, 이재기(세종지회장)
40회	자문위원	신용협(기회장), 조봉연
	이사	박한규, 백남원, 윤인학, 윤행길, 조용무
41회	자문위원	황순욱(옥천지회장)
	이사	김명수, 김조영, 박해욱, 유동원, 유성홍
42회	자문위원	이창호, 이휘, 장흥천, 한건웅, 한주철
	이사	김민철(기회장), 민응식, 배양일, 이강호
43회	고문	김각영
	자문위원	김기명(영동지회장), 이웅, 조신영(금산지회장)
44회	고문	김효경, 명건식(기회장), 민동일, 장광수, 전수병
	자문위원	박건영, 송인준
45회	고문	이규홍, 이만희, 허광범(공주지회장)
	이사	남명진(기회장)
46회	자문위원	민경용
	이사	김경구(기회장), 서순화, 이윤원
47회	고문	강창희, 김주필
	자문위원	고현철, 김광희, 김상기, 박주봉, 오수정
48회	고문	김명수, 김중희, 박종진, 안준영, 이주태
	이사	이현구(기회장)
49회	고문	장영철
	자문위원	이용선(울산지회장), 홍승원
50회	고문	강준목, 박대범, 변무섭(기회장)
	자문위원	손준현, 손주환, 이시구
51회	고문	강세경(기회장), 권오현, 권인순, 권희상, 김영우
	이사	김익배, 김중성, 백채완, 오강수, 이성구, 이진환
52회	고문	김광철, 박웅범, 박중서, 오세빈, 정하용, 정현화
	이사	권두성, 금동인, 김용욱, 류원식, 문종욱, 박정운
53회	고문	송현호, 양중대, 이원희
	이사	임상순
54회	고문	강성희, 김기룡, 김운, 김홍규, 김홍진, 남승화
	이사	명평근, 박광섭, 박일동, 박종우, 백태현, 서일환
55회	고문	송권영, 오승균, 유원준, 이계용, 이귀중, 이기재
	이사	이민재, 이병주, 이수우, 이신석, 이신영, 이원택
56회	고문	이유현, 이종국, 이종철, 이진갑, 임강수, 임동구
	이사	장시영, 장항진, 정규천, 정덕영, 최성호, 홍정의
57회	고문	황규영, 황성하
	이사	곽유신, 김덕중, 김동윤, 김용경, 김용대, 김홍은
58회	고문	남정수, 박용재, 왕성근, 유병학, 이남수, 이필수
	이사	임성우, 정만우, 조현묵, 홍승욱, 황인규
59회	고문	강구현, 강돈목, 강중광, 권동원, 권홍순, 김갑수
	이사	김대일, 김수환, 김일환, 김재식, 노병호, 박성순
60회	고문	박종익, 백지현, 서용윤, 송만수, 송인정, 신현승
	이사	오기환, 오동환, 유병수, 이근두, 이명우, 이수용
61회	고문	이재준, 이종하, 이충근, 임의순, 장래식, 정순교
	이사	최기식, 최병덕, 최태균, 허문행, 홍용태
62회	고문	권오상, 이상헌
	이사	김학형, 박병석, 손국배, 송용호, 이기우, 한승희
63회	고문	강인규, 김원영, 이상익(부산지회장), 이재성
	이사	장동천, 정태희, 정현철, 천용희, 함덕순(기회장)
64회	고문	황해봉
	이사	장석순
65회	고문	남방현 정상철
	이사	김택기, 오준(창원지회장), 장윤선, 정성희
66회	고문	주생(기회장)
	이사	김홍철, 이종식
67회	고문	김소식, 문윤성, 송시현, 황성연
	이사	권용대, 김학수(천안지회장), 남구현, 박기서
68회	고문	서광용, 신경식(청주지회장), 임범수, 전복진
	이사	전병구(기회장), 조성남, 주광섭(홍성지회장)

가수	구분	성 명
52회	감사	홍종오
	부회장	김형태
53회	자문위원	김창수, 박성호, 송하영, 이명수
	이사	김덕배(구미지회장), 김정모, 김충수(보령지회장)
54회	자문위원	류인출, 박경철, 박영선, 박준태, 송재호, 유하용
	이사	김영대, 김진원
55회	자문위원	권선택, 심재필, 윤여표, 정상직
	이사	구본관, 김광석(서천지회장), 김윤동(기회장)
56회	자문위원	나태순, 오천균, 이은정, 이익정, 임철, 장명근
	이사	현상길(예산회장)
57회	부회장	박종덕
	자문위원	강인빈, 이희석, 정태진, 황인무
58회	자문위원	권태원, 김성호, 김원경, 김원봉, 박정중, 송병두
	이사	신현교, 이범우, 임종갑, 장남식, 진승식(기회장)
59회	부회장	최동홍(당진지회장)
	이사	박근태, 신일영
60회	자문위원	박백범, 안은찬, 정규형
	이사	김갑동, 나상연, 류재영, 박원규, 이동형, 이성구
61회	부회장	이현, 허옥헌(기회장)
	이사	박균익, 손운, 이종구
62회	자문위원	구본석, 김충현, 윤인석, 조동인
	이사	권선호, 권희덕, 김영상(기회장), 나한엽, 남복현
63회	자문위원	민장기, 박찬인, 오택진, 유봉조, 유재명, 윤형식
	이사	이중엽
64회	감사	김종구
	부회장	김천호, 선승훈, 정창근
65회	자문위원	곽영교, 김형조, 이학문
	이사	고광선(이산지회장), 박동수, 박동익, 박종권
66회	자문위원	서대석, 송영곤, 여경구, 이민구, 이영민, 이우순
	이사	이익재, 진규현(기회장), 최원욱(대구회장)
67회	부회장	김경수, 문성식
	자문위원	송인암, 오충환, 이광우
68회	자문위원	권선국, 금기반, 김봉환(서산지회장), 김충수
	이사	김환국, 노명섭, 도정화, 명완재(기회장), 박용진
69회	자문위원	배재성, 성송기, 손근수, 손수명, 안계훈
	이사	이종연(청양지회장), 정인선
70회	부회장	나경수
	자문위원	박천수
71회	자문위원	김석주, 김선호, 김신철, 김용성(논산지회장)
	이사	김재한, 맹완영, 박상주, 이동구, 이영권, 이용규
72회	자문위원	장관식, 정성진, 진영주
	이사	송중환, 차성오
73회	부회장	김갑, 이수행, 정용기
	자문위원	권형준, 김봉배, 김용성, 명광직, 윤여백(기회장)
74회	자문위원	이경무, 이주혁, 이항섭, 이희만, 장영빈, 최충열
	이사	한찬수
75회	부회장	김광래, 김성덕
	자문위원	권형준, 김중무, 류운호, 이문희(기회장), 이장영
76회	자문위원	임대혁, 임형희
	이사	김동순(제주회장), 김성욱, 김용섭, 김종갑
77회	자문위원	김창수, 송관욱, 이대성, 이용배, 태영호(기회장)
	이사	이장우
78회	자문위원	강병진, 문병우, 박남규, 박종철, 박희윤, 안태정
	이사	이보행, 이종진(기회장), 정재인
79회	자문위원	김강우, 김성남, 김성우, 류제일, 문선재
	이사	박범정(기회장), 박종민, 박진수, 이명만, 이욱재
80회	자문위원	이인성, 이창우, 정필석, 조현
	이사	송오영
81회	자문위원	김갑수, 김진익, 남궁행석(기회장), 박상용
	이사	박종인, 임홍준, 진종식, 최순용
82회	자문위원	김규용, 김은섭
	이사	이종민
83회	자문위원	윤종일, 이강우, 이용훈(기회장), 이종한, 조규창
	이사	최영조, 최창기
84회	자문위원	고영호, 김광중, 송근일, 정윤덕(기회장), 황세근
	이사	오경석
85회	자문위원	김상수, 김창선, 김현채(기회장), 성용제, 안경환
	이사	최우현
86회	자문위원	박준일(기회장), 박훈, 이도훈, 이영선, 정돈희
	이사	권용일, 이상민(기회장), 정영환, 정정묵
87회	자문위원	명노신, 배지현(기회장), 신훈섭
	이사	정현필(기회장), 조명희
88회	자문위원	송혁준, 윤기웅, 최영균(기회장)
	이사	이승찬, 황윤선(기회장)
89회	자문위원	박찬규
	이사	여인준, 허현구
계 고문 18, 감사 3, 부회장 66, 자문위원 103, 이사 314		

발전기금				(단위 : 원)
가수	성명	충동창회 직책	2014년 회계	누계
28회	박영규	고문		14,000,000
32회	천권상		50,000	50,000
33회	박종윤	고문	2,000,000	5,000,000
35회	김종식			1,000,000
35회	김진두			226,000
35회	조준호	자문위원		1,000,000
37회	이원복		100,000	412,435
38회	송인섭	자문위원		3,000,000
40회	임철중	자문위원		1,000,000
40회	전 성			300,000
41회	김각영	고문	500,000	1,500,000
42회	박건영	고문	2,000,000	103,000,000
43회	강철규			1,000,000
44회	강창희	상임고문	1,000,000	3,000,000
44회	김경주			2,000,000
44회	김동극			5,000,000
44회	김순중			1,000,000
44회	박성수			1,500,000
44회	박종진			2,000,000
44회	박희준			3,000,000
44회	성필호			15,000,000
44회	송재준			31,000,000
44회	송화순			1,000,000
44회	오수정	자문위원	1,000,000	10,000,000
44회	오형근			7,000,000
44회	이중훈		2,000,000	73,000,000
44회	익 명			10,000,000
46회	이시구	자문위원		14,000,000
47회	김광철	이사		1,000,000
47회	박웅범	자문위원	1,000,000	1,000,000
47회	오영권			2,000,000
47회	정현화	자문위원		5,000,000
47회	설재섭			600,000
48회	신현일	충동창회장	3,000,000	3,000,000
48회	이기재	부회장	6,000,000	12,000,000
48회	이신석	수석부회장	1,000,000	1,000,000
48회	이종철	부회장	2,000,000	2,000,000
48회	임상순	수석감사	1,000,000	1,000,000
49회	이상헌	부회장		1,000,000
51회	김순식	자문위원		4,000,000
51회	송영호			500,000
51회	임범수	이사		1,000,000
51회	조석준		500,000	500,000
51회	황성연	자문위원	500,000	500,000
51회	황인방			2,000,000
52회	김형태	부회장, 기회장	500,000	2,500,000
52회	송하영	자문위원	500,000	500,000
52회	홍종오	감사		1,000,000
53회	표형식		1,000,000	1,000,000
54회	박종덕	부회장		3,000,000
56회	구자현			3,000,000
56회	김용욱		3,000,000	14,000,000
56회	박균익	부회장	1,000,000	2,000,000
56회	송인수		1,000,000	4,500,000
56회	유재명	이사		10,000,000
56회	여형구			3,000,000
56회	조동인	자문위원	3,000,000	3,000,000
57회	김중구	감사		2,000,000
58회	김경수	부회장		500,000
58회	변재훈		500,000	500,000
58회	문성식	부회장	1,000,000	1,000,000
60회	김 압	자문위원	500,000	500,000
60회	이수행	자문위원		100,000
60회	이주혁	이사, 기총무		100,000
64회	정경용			500,000
66회	이종민	자문위원		1,200,000
70회	정창용	웹실장		100,000
76회	여인준	기총무	1,000,000	1,000,000
뉴욕지회				520,725
38회	동창회			5,000,000
40회	동창회			5,000,000
41회	동창회			5,000,000
42회	동창회			5,000,000
44회	동창회			30,000,000
50회	동창회			3,000,000
51회	동창회			2,000,000
52회	동창회			2,000,000
53회	동창회		2,000,000	2,000,000
뉴욕지회				520,725
60회	동창회			10,000,000
61회	동창회			20,000,000
62회	동창회			5,000,000
63회	동창회		5,000,000	5,000,000
70회	동창회			3,000,000

가수	성명	총동창회 직책	2014년 회계	누계
71회	동창회			1,500,000
72회	동창회			3,000,000
73회	동창회	1,000,000	1,000,000	
대고운영위원회(2009년도)				10,000,000
대능장학문화재단				20,000,000
대고의사회				35,000,000
능약회				3,000,000
삼금회				11,000,000
대동모		2,000,000	9,000,000	
기능회				1,000,000
행복한 주주포럼				57,106,299
계			46,650,000	657,215,459

기별 분담금 (단위 : 원)				
가수	연회비	정기총회	등반대회	송년의 밤
44회	600,000	1,200,000	1,000,000	450,000
45회	600,000	1,200,000	1,000,000	450,000
46회	600,000	1,200,000	1,000,000	450,000
47회	600,000	1,200,000	1,000,000	450,000
48회	600,000	1,200,000	1,000,000	450,000
49회	600,000	1,200,000	1,000,000	450,000
50회	600,000	1,200,000	1,000,000	450,000
51회	600,000	1,200,000	1,000,000	450,000
52회	600,000	1,200,000	1,000,000	450,000
53회	600,000	1,200,000	1,000,000	450,000
54회	600,000	1,200,000	1,000,000	450,000
55회	600,000	1,200,000	1,000,000	450,000
56회	600,000	1,200,000	1,000,000	450,000
57회	600,000	1,200,000	1,000,000	450,000
58회	600,000	1,200,000	1,000,000	450,000
59회	600,000	1,200,000	1,000,000	450,000
60회	600,000	1,200,000	1,000,000	450,000
61회				
62회				
63회				
64회				
65회	600,000	1,200,000	1,000,000	450,000
66회				
67회	600,000		500,000	450,000
68회	600,000	1,200,000	1,000,000	450,000
69회	600,000	1,200,000	1,000,000	450,000
70회				
71회				
72회	600,000	1,200,000	1,000,000	450,000
북가주지회	110,000			
합계	13,310,000	25,200,000	21,500,000	9,900,000

가수	성 명
48회	강성희, 김기룡, 김 운, 김홍규, 박광섭, 박종우 서일환, 송권영, 오승균, 이계용, 이귀중, 이기재 이민재, 이병주, 이승우, 이신석, 이신영, 이유현 이종국, 이종철, 이진갑, 임강수, 이동구, 장항진 정규천, 정덕영, 홍정의, 황성하
50회	장석순
51회	김홍철, 이충식
55회	박근태, 신일영
56회	손윤
58회	김경수
68회	오경석
계	36명

자문위원성금(300,000원)	
가수	성 명
35회	조준호
36회	권선우
37회	김종두
38회	송인섭, 신석정
40회	임철중
46회	손종현, 이시구
47회	오세빈
48회	김용대, 남정수, 왕성근, 이남수, 이필수, 조현묵, 황인규
49회	김학형, 박병석, 한승희
50회	남방현, 정상철
51회	김순식, 문윤성, 황성연
54회	강인빈, 이희석, 정태진
55회	안은찬(20만원)
56회	구본석, 김충현, 윤인석, 조동인
58회	오충환, 이광우
60회	김암, 이수행, 정용기
계	37명

이사회비(100,000원) (단위 : 원)	
가수	성 명
34회	김용환
39회	한건웅
40회	배양일
41회	김효경, 민동일, 장광수
44회	안준영, 이현구
46회	강세경, 권오현, 권인순, 권희상, 김영우, 김익배 백채완(차년 포함), 이성구
47회	권두성, 김용욱, 류원식, 박정운, 송현호, 양종대, 이원희
48회	강돈묵, 강중광, 권홍순, 김갑순, 김수환, 김재식, 박성순 신현승, 이근두, 이수용, 이재준, 이종하, 정순교, 최태균
49회	강인규, 김원명, 이상익, 장동천, 정태희, 천용희, 함덕순
50회	김택기, 정성희, 주성
51회	권용대, 남구현, 신경식, 전복진, 조성남, 주광섭
52회	김덕배, 김정모, 류인출, 박영선, 송재호, 유하용
54회	권태원, 김성호, 김원경, 김원봉, 박정중, 송병두, 신현교 이범우, 조영환, 진승식
55회	김갑동
56회	권덕희, 나한엽, 민장기, 오택진, 유봉조(차년 포함) 유재명(과년에 납부, 차년 납부), 윤형식, 이종엽
57회	송영근, 최원욱
58회	권선국, 금기반, 김한국, 노명섭, 박용진, 성송기, 손근수 안계훈
59회	김석주, 김신철, 김용성, 이동구, 정성진, 진영주
60회	김봉배, 김용성, 명광직, 이주혁(과년에 납부, 차년 납부) 이희만
61회	김종무, 임형희
62회	태영호
63회	안태정, 이보행
64회	박종민
65회	김진억(과년에 납부)
67회	김광중
68회	김현채
69회	박춘일, 이도훈, 이영선
70회	권용일, 정정묵
71회	명노신, 신훈섭
계	115명 (당해 112명, 과년 납부 3명 - 4명은 차년 것도 납부)

과년도 수입 (단위 : 원)			
가수	성명	납입액	비고
62회	태영호	100,000	2013회계 이사회비
68회	오경석	1,000,000	2013회계 부회장회비
계		1,100,000	

대전고 100주년 기념
행사기금 모금 캠페인

一・百・百 運動
(1일 100원씩 100주년까지!)

하루 100원씩이 모여
대전고 100년의 역사가
쌓여갑니다

2014 송년의 밤 찬조금 현황 (단위 : 원)			
가수	성명	총동창회 직책/ 직장·직책	금액
33회	박종윤	고문 / (주)세창 회장 대능장학문화재단 이사장	500,000
42회	박건영	고문 / 서울정형외과 원장	1,000,000
44회	강창희	상임고문 / 국회의원	1,000,000
47회	박용범	자문위원 / (주)중앙개발 대표이사	500,000
48회	이기재	부회장 / (주)제이스통상 대표이사	2,000,000
48회	이신석	수석부회장 / 대전보건대 교수	1,000,000
48회	이종철	부회장 / (주)위드하나 대표이사	1,000,000
48회	임상순	수석감사 / 임상순·송동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1,000,000
51회	조석준	재경동창회 부회장 / 한국융합미디어협회장	500,000
51회	황성연	자문위원 / (주)UPC 대표이사	500,000
52회	김형태	부회장 /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500,000
56회	김용욱	대전도시환경산업 광산기업(주) 대표	1,000,000
58회	문성식	부회장 / 법무법인 C&I 대표변호사 대전시변호사회장	1,000,000
58회	오충환	자문위원 / (주)코스모 E&F 대표이사	300,000
60회	김 암	자문위원 / (주)하나검정평가법인 대전충청지사 이사	500,000
73회	동창회		500,000
모교			1,000,000
재경동창회			1,000,000
대동모		대전고 동문의 동문을 위한 모임 / 회장 임도혁(59회)	1,000,000
재경 오능회		재경 50~60회 전·현직 회장 및 총무 모임 / 회장 이철재(51회)	1,000,000
계			16,800,000

2014 송년의 밤 광고협찬 현황 (단위 : 원)			
가수	성명	총동창회 직책/ 직장·직책	금액
48회	신현일	총동창회장 / 보문통상(주) 대표이사	3,000,000
56회	조동인	재경동창회 부회장 / 해커스교육그룹 대표	3,000,000
56회	박균익	부회장 / (주)아이씨푸드 대표이사	1,000,000
76회	여인준	76회 총무 / 세무법인 오늘 대전지점 대표 세무사	1,000,000
계			8,000,000

2014 송년의 밤 협찬품 현황			
〈물품〉			
가수	성명	총동창회 직책/ 직장·직책	물품
48회	신현일	총동창회장 / 보문통상(주) 대표이사	치약세트 450개 (250만원 상당)
55회	박근태	(주)더맥스컴퍼니 사장	린 소주 300병 (40만원 상당)
65회	진종식	하나투어 블루여행클럽 대표	KAL 제주도 왕복항공권 2매 (40만원 상당)

〈달력〉			
가수	성명	직책/ 직장·직책	물품
31회	이인규	계룡건설산업 명예회장	탁상용 300부
44회	오수정	대전서부병원장	벽걸이용 200부
50회	정상철	충남대학교 총장	벽걸이용 50부
53회	윤여표	충북대학교 총장	탁상용 100부
60회	류치정	하나은행 갈마동지점장	벽걸이용 50부
60회	최용섭	외환은행 기업지점장/대전	벽걸이용 50부
68회	김창선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노조 충청지역본부장	탁상용 100부
하나은행 대흥동지점			벽걸이 100부

〈화환〉			
가수	성명	비고	
33	박종윤	대능장학문화재단 이사장	
46	손종현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52	송하영	한밭대학교 총장	
53	김현규	대전고등학교 교장	
53	윤여표	충북대학교 총장	
66	이종민	(주)메디스타 이사	
육동일		대전중학교총동창회 회장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전고등학교 제71회 동창회

• 회장 배지현 • 총무 명순영 • 재경회장 김두윤

TF GROUP The Team FOCUS Group
Management Strategies

김기웅
컨설턴트

팀 포커스 코리아
139-20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30 가길 57(2층)
Tel 0505 235 3544~5
Fax 0505 235 3546
Internet Fax 0505 235 3543
Mobile **010 6757 6350**
E-mail oneorgy@naver.com
www.teamfocus.org

Canada,
Hong Kong,
Korea,
UK, USA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대리인 김두윤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100-391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2(장충동1가, 제일빌딩 4층)
Tel : (02) 3670-9031 Fax : (02) 2266-9092
E-mail : dooyoon@kdic.or.kr

길맨비뇨기과
남성수술/요로결석

원장/비뇨기과전문의
김상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52-6
(대학로1) 유성빌딩 2층
T 042-825-0002
042-825-0067(직통, 야간)
F 042-825-0098

www.gilman.co.kr

LG www.uplus.co.kr

박형민
경영관리실(CFO) 회계담당 정책회계팀 / 팀장

LG유플러스
100-095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LG유플러스 빌딩
M. 010-8080-0375 E. hmpark@lguplus.co.kr

장산
숯불갈비·함흥냉면 전문점

대표 **윤경훈** Mobile **010-8808-850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764번지
TEL 043) **287-9700**
FAX 043) 287-9600
E-mail ykh8501@hanmail.net

한국평생학습지원센터
www.kplus.kr

대전교육센터장
이상훈

대전시 대덕구
디아트하우스웨딩홀
T.042,822,6230

H.P:010-2333-2166
E-mail : galiberg@nate.com

대전 MBC

차장 **임세혁**
Sehyuk Lim

편성제작국/프로그램제작부/아나운서

천진수 makesink

대동산업 Daedong Industry. Since 1979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435
TEL 042_282_6262 | FAX 042_282_1006
H·P 010_3839_4343 | E-mail jsch27@naver.com
naver.cafe "makesink"

명한의원
MYUNG ORIENTAL MEDICINE

원장/전문의
한의학박사 **최병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56번지 메디빌딩 3층
(시청역 6번 출구 50M 지점, 현대아이텔 옆건물)
Tel (042) **472-0700** Fax (042) 472-0774
Mobile **010-3478-0375** E-mail 4720700@hanmail.net

개교 100주년에 감을 대전고의 발자취를 찾습니다



추억에 묻힌 우리들의 역사를 되살리는데 동참합시다!

2017년 개교 100주년을 맞는 대전고가 지난 역사를 찾습니다.
졸업앨범, 사진, 교과서, 교복, 모자 등 자료를 기증해주십시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대전시 중구 대흥로 121번길 8(대전고 동창회관 2층)
대전고등학교총동창회 ☎ 042-257-0005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전고등학교 제72회 동창회

• 회장 정현필 • 총무 이주훈 • 감사 김경수 • 이사 김진규 정근은 이모성 • 재경회장 신광순 • 재경총무 오상용



DAEJEON MIRE HOSPITAL
대전미래병원

이사장 **곽 병 호**

301-846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357번지
T 042 224 7575~7577 F 042 224 7578
M 010-5416-4494 E kbh4494@hanmail.net

[건강보험 검진의료기관|인공신장실|노인병동|산재지정|24시간진료]



법무법인 架橋
가교 橋

변호사/변리사
구 자 강 (具滋康)

대전 분사무소 M 010-6285-4805

302-120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1호
M 042-482-9402 / 483-9403
F 042-484-9408 E epaille@hanmail.net

계 손잡이 필요한 당신께 제 모든 열정을 쏟겠습니다.



(주)석정산업·(주)정림
전문건설업(석공사) 석재전문

상무이사 **김 경 수**

본사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88-21
TEL: (042)585-5511 FAX: (042)582-5511

공장 충남 논산시 부곡면 감곡리 80-13
TEL: (041)734-5008 FAX: (041)733-6719
H·P: (010)7459-1993 E-mail: keisue@hanmail.net



한화익스프레스

대표 **김 성 범**

이사 잘하는 집
H·P : 010-5423-6913
Tel : 042-2424-1212
042-485-5324

완전포장 · 반포장
보관이사 · 일반이사
부분포장 · 사무실이전



[주]세종정보기술

김 기 훈

대표전화 1670-3511
M. 010-7205-4554

대전 유성구 장대동 281-2

삼성, 후지 제록스, 캐논, 브라더, 대우
-SERVICE, MAINTENANCE



GOODSGOOD
We'll make the happiest products in the world!

관리이사 **김 진 규**

(주)굿스굿 www.goodsgood.co.kr
321-916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제산단로 38
Phone, 1544-1737 / Fax, 042. 623. 6828
Mobile, 010. 3455. 8759
E-mail, kjink94@hanmail.net



호서세무법인

계룡지점 대표세무사
김 진 석
010-8723-5816

충남 계룡시 장안로 43,
대송프라자 403호
(금암동, 계룡시청 앞)
Tel: 042-841-6969
Fax: 042-841-6962
E-mail: cta93@hanmail.net

롤리팝스토어 세계수입과자할인점



LOLLI POP STORE

대표 **나 경 연**
H.P 010-8402-7075

대전 중구 태평로 35 버드내아파트 2단지 상가



카페지오 플러스

대표 **박노정**

M 010-9403-0055
E kimyk19@hanmail.net
A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597-1

이모성
e착한학생복 대전 도마점



e착한 학생복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26 써머스빌 상가 101, 102호
T 042-582-9898 / 583-9898
F 042-586-1813 M 010-6655-0514
E-mail oipcd@naver.com www.echakan.com

대전의 대학로를 꿈꾸다



아신아트컴퍼니

대표 **이 인 복**
010-9908-5944

*우수컨텐츠 : 학교폭력예방뮤지컬 [마지막 선물] 외
*운영공연장 : 가톨릭문화회관아트홀, 아신극장

누진다초점 전문
명품&하우스 브랜드 취급



The 안경

대표 / CEO
이 주 훈
Lee, Ju Hoon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459-1
(송촌동 국민은행 맞은편/스타벅스 옆)
Tel. 042-633-0703
Mobil, 010-5462-7602
E-mail, juhun2877@hanmail.net



삼화모터스(주)
포드/링컨 충청지역 공식딜러

천안 지점장 72회 **이 준 형**
Mobile 010.2046.1001

구입 및 시승상담
77회 박종용 010-2997-3704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50-24
전시장 T)041,562,0007 F)041,553,8908 서비스 T)041,563,0009



이정규이진성 세무회계 사무소

세무사 **이 진 성**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234번길 45, 304
(둔산동, 하이베라스 3층)
TEL : (042) 489-5500
FAX : (042) 489-5562
H·P : 010-3471-3429
E-mail : ctajinsung@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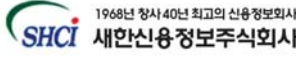
(주) 동 우 기업

정근은
대표이사
M. 010-6406-6840

대전시 중구 계백로 1719
센트리아 오피스텔 1106호(오류동)
Tel 042-527-1106~7
Fax 042-522-1108
E-mail jke74@hanmail.net
Company E-mail jke6840@naver.com

생산도급 | 생산임가공 | 인력공급 | 침술 | 아웃소싱 | 헤드헌팅

Since 1968



SHCI 새만신용정보주식회사

정 창 근
강남지점/지점장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69-9 해암빌딩 2층
Phone : 02) 3471-5966(直)
Fax : 02) 6925-6430
Mobile : 010-4046-7810
E-mail : mugia@nate.com

www.shcinfo.com



태영회계법인
www.tya.co.kr

파트너 공인회계사
세 무 사 **정 현 필**
Mobile. 010.3274.9894

305-509 대전시 테크노중앙로 54(관평동) 남정빌딩 301호
Tel 042.536.2347~8 Fax 042.533.2348
E-mail : jhp-an@hanmail.net

공감언론 **NEWSis.()**

대전·충남 취재본부 / 차장
조 명 휘

국내최대민영뉴스통신사 **뉴 시 스**

302-82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98 금강빌딩 4층
Tel. 042-323-7400 Fax. 042-638-3437
Mobile. 010-6476-5119 E-mail. joemedia@newsis.com



코 인
Korea Injection

대표 **김 문 준**
M. 010-4540-0641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328
Tel. 041-753-3579 Fax. 041-753-3578
E-mail. parigaz@naver.com

정밀사출 / 조립



대전고등학교 72기
이 일
M. 010-8834-1004

- 제72회 회비 납부자 명단 -

이름	반
강준영	8반
강현식	10반
구자강	8반
권기진	8반
권익승	6반
김건(김건우)	9반
김경수	11반
김기훈	9반
김동기	5반
김문준	11반
김성범	10반
김성중	9반
김종호	11반

이름	반
김진규	8반
김진석	11반
김태화	5반
김학호	11반
나경연	9반
노미성	10반
류일한	6반
박군호	4반
박노정	1반
박성경	8반
박성순	5반
박세철	6반
박수홍	2반

이름	반
봉선옥	11반
부경탁	7반
서익석	11반
송은섭	9반
신상재	2반
신정훈	10반
안영민	3반
양승대	5반
양우영	8반
우상균	2반
유대원	8반
유영복	10반
이경길	6반

이름	반
이광형	1반
이모성	7반
이상길	9반
이상욱	8반
이상진	5반
이성철	10반
이인복	8반
이 일	10반
이정국	8반
이주훈	8반
이준형	5반
이진성	3반
이충우	11반

이름	반
장광현	1반
전재덕	5반
정근은	1반
정창근	12반
정현필	10반
조명휘	8반
조형찬	9반
홍성걸	8반
황은주	2반

※ 항상 뒤에서 도움주는
친구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www.dchp.or.kr

“국내최초 노인질환 중심 종합병원”

대청병원

3월 9일 진료개시

노인질환 중심 종합병원
대청병원

▼ 대청병원 대표 의료진



병원장 | 오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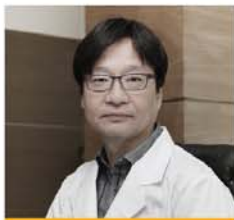
의무원장 | 하호균



종합검진센터 원장 | 김응수



진료부장 | 최수영



소화기내과 과장 | 박승욱



정형외과 과장 | 황인성

▼ 대청병원 오시는 길



대청병원은

허리디스크, 뇌졸중, 관절염,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노인질환 중점 진료신경외과, 소화기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등
20개 진료과 운영서울대·삼성서울병원·한양대·충남대 출신
의료진 40명 포진

· 충청권 최고 사양의 64채널 PET-CT 및 MRI, CT 가동

· 환자 중심의 편의시설과 어르신 통합진료실 설치

· 환자의 치유를 돕는 ‘옥상가든’ 오픈



버스 이용 시

급행1, 201, 202, 211, 216, 615, 21, 22,
23, 25, 26, 42, 46 → 남부소방서 하차

지하철 이용 시

① 서대전역 하차 → 급행1, 201, 202 버스로 환승
② 용문역 하차 → 211, 703 버스로 환승

대청병원 노인질환 중심 종합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1322 (정림동 8-89번지)

대표번호 : 1899 - 6075